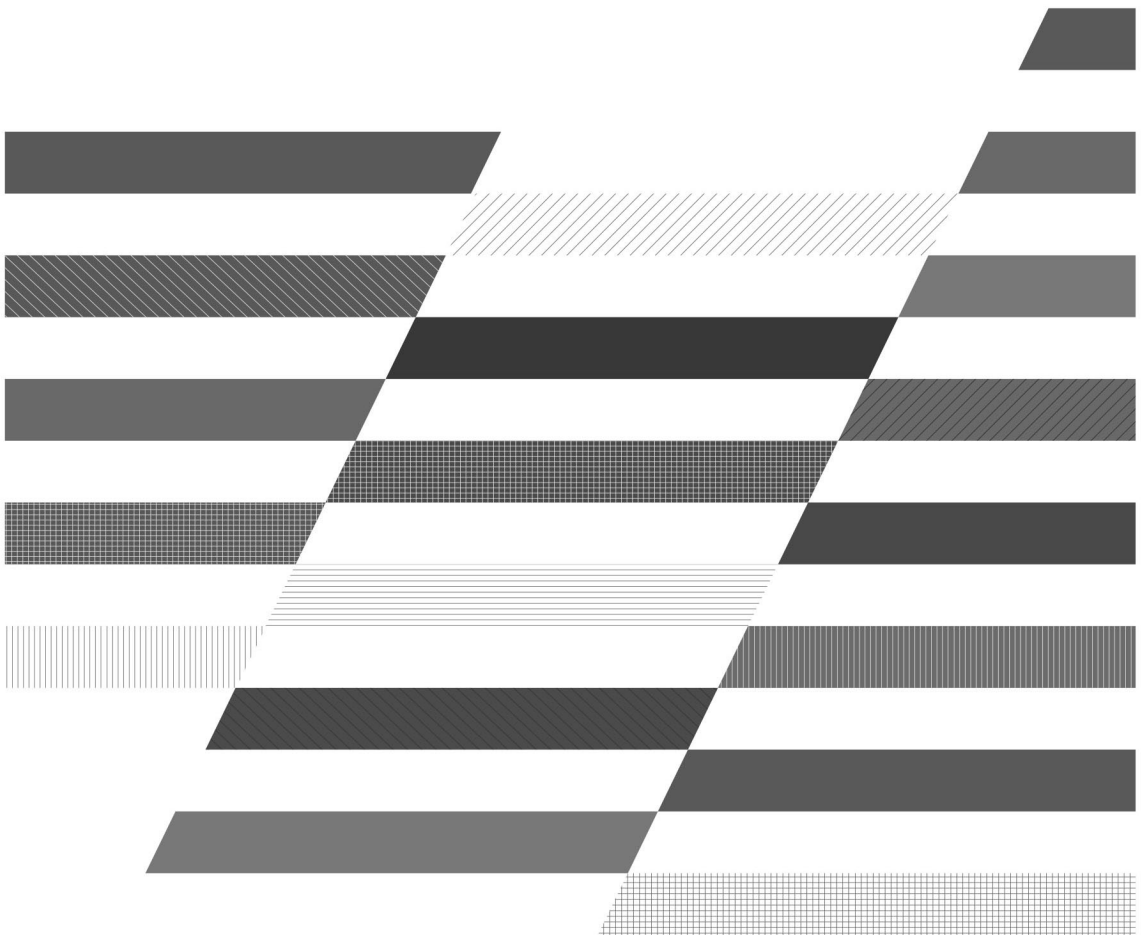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석

송민혜 운영관



책임연구원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 정책연구팀 책임

보조연구원 윤영관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예비 50+세대와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보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50+세대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중장년층의 활동, 가치관, 관심사, 필요한 정책에 대한 영역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50+세대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과 50+정책개발 및 사업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21년에 실시한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50+세대들의 일, 활동, 관심영역에 대한 유형화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안 등 50+정책 및 사업운영 활용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라이프스타일 영역별 유형화 분석
 - 활동(사회참여, 여가), 디지털 역량(활용, 필요성), 관심 및 가치관(건강, 여유시간, 정치참여), 노후준비(정보제공, 희망노후형태) 영역별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특성과 차별성 분석
- 연령특성, 성별, 가구소득 등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석
 - 연령(만45~49세/만50~54세/만55~59세/만60~64세/만65~69세), 성별, 가구소득,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등의 특성을 각 영역별 분석에 반영하여 활동, 디지털역량, 관심 및 가치관, 노후준비 특성과 차별성 분석

○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도출

-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 일자리, 활동 지원방안 도출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50플러스 캠퍼스 활동 로드맵 제시

■ 연구의 추진 방법

○ 중장년 유형화 선행연구

- 중장년 특성분석 및 유형화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에 도출된 중장년 유형별 특성 제시
- 중장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및 활동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 후 본 연구목적에 맞게 활용

○ 실증분석

- 2021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유형화 분석
- ANOVA 분석: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F값을 활용하여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검정하고, 각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통계기법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대상 개체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유사성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로부터 각각의 개체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는 분석기법(Romesburg, 2004)

■ 조사설계

○ 조사 대상 및 유효 표본

-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1개 집계구당 5가구 내외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목표 표본(2,200가구) 대비 455개의 집계구를 추출함.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DB를 활용했으며, 추출된 455개의 집계구에서 2,257가구(응답자 기준 3,036명)를 조사함

○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만 45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952년~1976년생)
유효 표본	• 2,257가구 (응답자 기준 3,036표본) -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조사대상 적격자일 경우, 전수조사 실시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s)
조사 방법	•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21. 05. 31. ~ 2021. 07. 16. (약 7주)

○ 조사 항목

- 본 조사의 항목은 ‘일자리’, ‘활동’, ‘관심’, ‘의견’, ‘코로나19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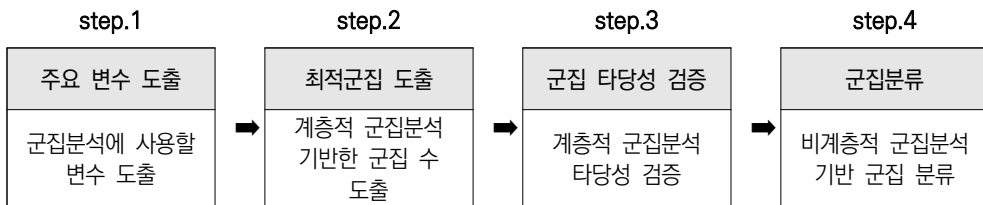
○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내 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자리 현황 및 경제활동 변화 • 퇴직 현황 • 창업 현황 • 구직/이직 현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활동 현황 • 여가활동 현황 • 디지털 역량 현황 • 소비행태·성향 현황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현황 • 관심사 및 노후준비 현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및 정치적 의견 현황 • 삶의 질과 행복 현황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활동 범위 변화 • 디지털기기 사용량 변화 • 가사노동 및 돌봄 변화 • 소비행태 변화 • 생활비 및 지출 내역 변화 • 건강상태 변화 • 가족관계 변화 • 삶의 질 전반적·구체적 영향 및 전망

○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서울시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함. 이 방법은 다양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여 가장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이는 50+세대들을 연구자가 지정한 수의 집단으로 분류해 주는 방법임(박양주 외, 2014)

* 단계적 군집분석의 유형화 절차



○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하여 활동, 디지털 역량, 관심사, 노후준비 영역을 살펴봄

○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활용 문항

유형	군집 특성
① 50+세대의 활동	- 사회참여 활동(노동조합단체 및 이익집단 /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 / 자원봉사 및 기부 / 사회적 경제조직) - 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 스포츠 관람, 운동 활동 / 관광, 취미오락, 교양학습 /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 참여경로(대중매체 / 가족 / 직장)
②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OA활용 / 생활서비스 / SNS / 블로그활동 및 미디어창작 / 판매채널 개설 / 새로운 기기·기술체험 및 활용 / 활용의 어려움)
③ 50+세대의 관심사	- 현재의 관심사(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 생계비(가계) 마련 / 본인의 건강 / 여가 및 취미활동 / 노후준비) - 사회문제 및 정치적 의견(SNS, 블로그 등에 글 올리기 /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 스티커 부착 /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 집회 및 시위 참여 / 언론기사 찾아보기 / 주변 사람들과 공유 / 특정 상품 불매, 구매 /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 정책참여 채널(주민참여예산 등) 활동
④ 50+세대의 노후준비	- 보내고 싶은 노후형태(취미생활 / 소득창출 / 귀농·귀촌 등 전원생활 / 여행·관광)

▣ 분석결과 종합

○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성별, 소득, 학력에 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스포츠 관람, 운동 활동 등 외향적인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문화예술관람을 비롯한 여가활동의 범위는 가구소득 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여건에서는 영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비중이 넓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가구원의 수가 많고 이에 따른 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관광,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현재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에서는 향후 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경우 교육, 여가, 문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 일상생활에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일정수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부행정 서비스 등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소득에 따른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 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의 역량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또한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 가구원 구성이 많고 소득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특성 상 자녀교육 및 자녀의 취업이 주된 관심사인 유형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생계비 마련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그룹이 형성됨
- 성별 및 연령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 및 연령층이 낮은 집단은 취미·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및 연령층이 높은 집단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형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 정책수요에 대한 유형은 소득보장을 선호하는 유형과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유형이 구분되었고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중장년 남성이 유의미한 유형으로 도출됨

○ 50+세대의 노후준비

-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무, 취미·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필요하다 여기는 유형이 도출됨
-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 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과 취미·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주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유형이 도출됨
- 비교적 연령이 낮은 중년여성의 경우 일자리, 경력관리,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소득 변수에 따라 가구원 구성이 많고 소득이 많은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설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형이 도출됨

▣ 정책적 시사점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과 운영방식의 다양성 확보

-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그룹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집단은 특별한 정책적 지원 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여가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유인(incentive) 및 경로는 가족 및 친구 등 접근이 비교적 쉬운 주변을 통해 참여하는 유형이 나타남.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융합형 참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누구와도 함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여 독려를 위한 활동처 홍보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현재 무언가 활동을 하는 집단일수록 향후 생활계획에 있어 남은 시간에 대한 활용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중장년이 퇴직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보편적 정책 확대가 필요함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중장년 층 내에서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취미와 일·활동 적용까지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수준에 맞는 단계적 지원 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중장년 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디지털역량 강화 교수학습법의 다양화
 -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필요성을 분석해 본 결과 연령 혹은 소득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이가 나타남으로 수준별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안도 필요함.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활용법이나 금융 및 행정 서비스 관련 앱 활용 등에 대한 체험형 학습 강화와 50+캠퍼스나 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방문하여 1:1로 상시 배울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등의 지원안 마련이 필요함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 연령특성을 반영한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 마련
 -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교육 및 자녀의 취업이 주된 관심을 보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므로 이 영역에서는 장년층의 연령을 세분화시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여가·사회참여프로그램 개발 시 중장년층의 연령을 세분화시켜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한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중장년층 정책수요를 살펴보면 소득보장과 정년연장의 두 유형이 도출됨. 이는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관심사가 지속적인 일·활동을 통한 소득마련과 관련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이를 위해서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함
 - 특히 중장년층의 퇴직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40대와 50대 60대의 일·활동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년층의 일·활동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3) 50+세대의 노후준비

○ 생애설계종합상담의 역할강화

- 50+세대의 노후준비 정보제공 니즈를 살펴보면 재무, 취미·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각 캠퍼스와 센터에서는 중장년의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을 통해 정보 제공 및 활동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종합상담센터 홍보 강화와 신규 유관기관 발굴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창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함

○ 생애설계종합상담 접근방식의 다양화

- 특히 중장년의 경우 동년배를 통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홈페이지, 앱 등을 활용한 생애설계 종합상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도 손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노후준비지원기관으로의 지정을 통해 중장년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 50플러스 캠퍼스와 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 안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 50+세대 유형별 정책적 지원 분야

유형	지원정책 특징	지원안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동 프로그램 유형과 운영방식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융합형 참여프로그램 개발 • 참여 시간과 경로의 다양성 확보 • 활동처 홍보 강화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처방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진단 실시 • 역량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방안 처방 • 교수학습법의 다양화
관심사	연령특성 세분화 통한 관심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세분화 통한 여가·사회참여 니즈 파악 • 다양한 니즈에 맞는 프로그래 발굴과 운영 • 중장년 적합일지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Contents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적 범위	4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5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선행연구 검토	9
1. 국내의 50+관련 선행연구	9
2. 해외의 선행연구	12
제2절 50+세대의 유형화	14
1. 라이프스타일 개념 및 유형화에 관한 변수	14
2. 50+세대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15

제3장 서울시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제1절 조사설계	19
1. 조사대상 및 방법	19
2. 모집단 층화 및 응답자 특성	21
3. 분석 방법	27
4.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변수 및 측정지표	28
제2절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실증분석	36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36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48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60
4. 50+세대의 노후준비	66

제4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결과 종합	75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75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75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76
4. 50+세대의 노후준비	76
제2절 정책적 제언	78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78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79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80
4. 50+세대의 노후준비	81

참고문헌	83
------	----

표목차

〈표 2-1〉 국내의 50+세대에 관한 연구	11
〈표 2-2〉 해외의 50+세대에 관한 연구	13
〈표 2-3〉 50+세대 유형화를 위한 이론 및 변수 정리	15

〈표 3-1〉 조사 방법	19
〈표 3-2〉 주요 조사 항목	20
〈표 3-3〉 모집단 층화변수별 층화 특성	21
〈표 3-4〉 조사대상 모집단	22
〈표 3-5〉 조사대상 표본 배분	23
〈표 3-6〉 분석 대상자의 서울시 자치구별 분포	24
〈표 3-7〉 응답자 세부 특성	25
〈표 3-8〉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활용 문항	28
〈표 3-9〉 영역별 유형화 분석을 위한 변수 및 측정지표	29
〈표 3-10〉 응답자의 성별	32
〈표 3-11〉 응답자의 연령	33
〈표 3-12〉 응답자의 가구형태	34
〈표 3-13〉 응답자의 가구원 구성	34
〈표 3-14〉 응답자의 소득 분포	35
〈표 3-15〉 영역별 유형화 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적 변수 코딩	35
〈표 3-16〉 사회활동 참여경로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37
〈표 3-17〉 사회참여활동 여부 세부특성	38
〈표 3-18〉 사회활동 참여경로 군집분석	39
〈표 3-19〉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40
〈표 3-20〉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군집분석 I	42
〈표 3-21〉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관한 집단별 특성 I	43
〈표 3-22〉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군집분석 II	47
〈표 3-23〉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관한 집단별 특성 II	48
〈표 3-24〉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기술통계량	49
〈표 3-25〉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연령대별 평균 수준	50
〈표 3-26〉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연령대별 평균 수준	51
〈표 3-27〉 디지털 역량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53
〈표 3-28〉 디지털 활용 역량 및 필요성 군집분석	55
〈표 3-29〉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군집별 특성 I	57
〈표 3-30〉 디지털 활용 역량 군집분석	58

〈표 3-31〉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군집별 특성 II	59
〈표 3-32〉 50+세대 관심사 기술통계량	60
〈표 3-33〉 관심사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60
〈표 3-34〉 관심사 군집분석	61
〈표 3-35〉 관심사 및 희망노후 형태	62
〈표 3-36〉 관심사 및 필요한 노후준비 정보제공 군집분석	63
〈표 3-37〉 중장년층 관심사에 관한 군집별 특성	64
〈표 3-38〉 중장년층의 정책수요 군집분석	65
〈표 3-39〉 중장년층 정책수요 군집분석(사회경제적 변수 추가)	65
〈표 3-40〉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 변수 기술통계량	66
〈표 3-41〉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 상관계수	67
〈표 3-42〉 노후준비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68
〈표 3-43〉 향후 보내고 싶은 노후형태 군집분석	69
〈표 3-44〉 노후준비 ·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 군집분석	69
〈표 3-45〉 노후준비 정보제공 군집분석	70
〈표 3-46〉 50+세대의 노후준비 군집분석	71
<hr/>	
〈표 4-1〉 서울시 50+세대 유형별 정책적 지원 분야	81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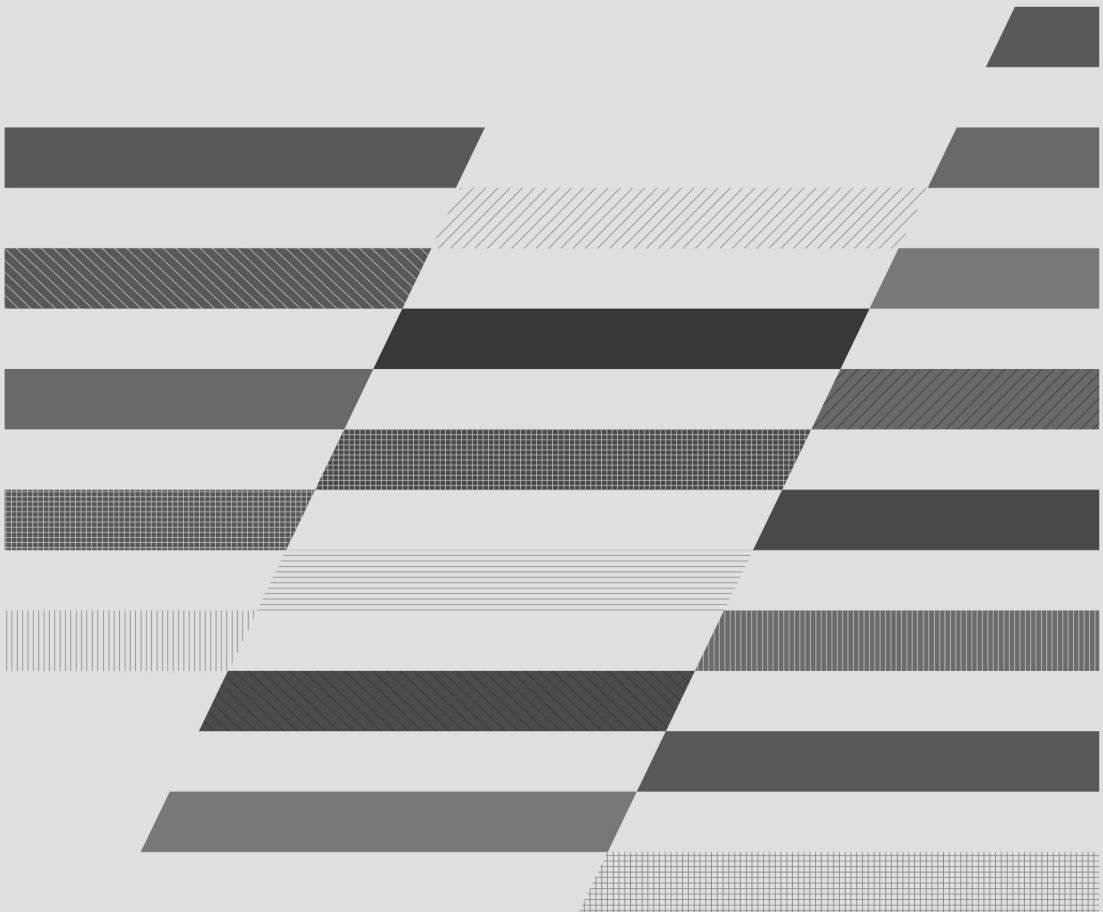
[그림 3-1] 활동참여 경로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44
[그림 3-2] 학력 및 소득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45
[그림 3-3] 사회참여 추구정도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45
[그림 3-4] 디지털 활용 역량 및 필요성 인식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56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2021년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50+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였음. 해당 자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대의 분야별 삶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기반 욕구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조사연구임
- 이 조사연구에는 서울시 50+세대의 인적사항, 일자리, 노후준비(재무, 노후설계교육 분야), 가치관, 학습, 사회자본(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건강, 여가, 삶의 만족도 및 50+정책 인식과 관련된 정보가 있어 서울시 50+세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함.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2021)」 결과자료를 심층분석함으로써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예비50+세대와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보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50+세대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중장년층의 활동, 가치관, 관심사, 필요한 정책에 대한 영역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50+세대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과 50+정책개발 및 사업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21년 50+세대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50+세대들의 일, 활동, 관심영역에 대한 유형화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안 등 50+정책 및 사업운영 활용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제2절 연구의 내용적 범위

- 라이프스타일 영역별 유형화 분석
 - 활동(사회참여, 여가), 디지털 역량(활용, 필요성), 관심 및 가치관(건강, 여유시간, 정치참여), 노후준비(정보제공, 희망노후형태) 영역별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특성과 차별성 분석
- 연령특성, 성별, 가구소득 등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석
 - 연령(만45~49세/만50~54세/만55~59세/만60~64세/만65~69세), 성별, 가구소득,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등의 특성을 각 영역별 분석에 반영하여 활동, 디지털역량, 관심 및 가치관, 노후준비 특성과 차별성 분석
-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도출
 -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 일자리, 활동 지원방안 도출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50플러스 캠퍼스 활동 로드맵 제시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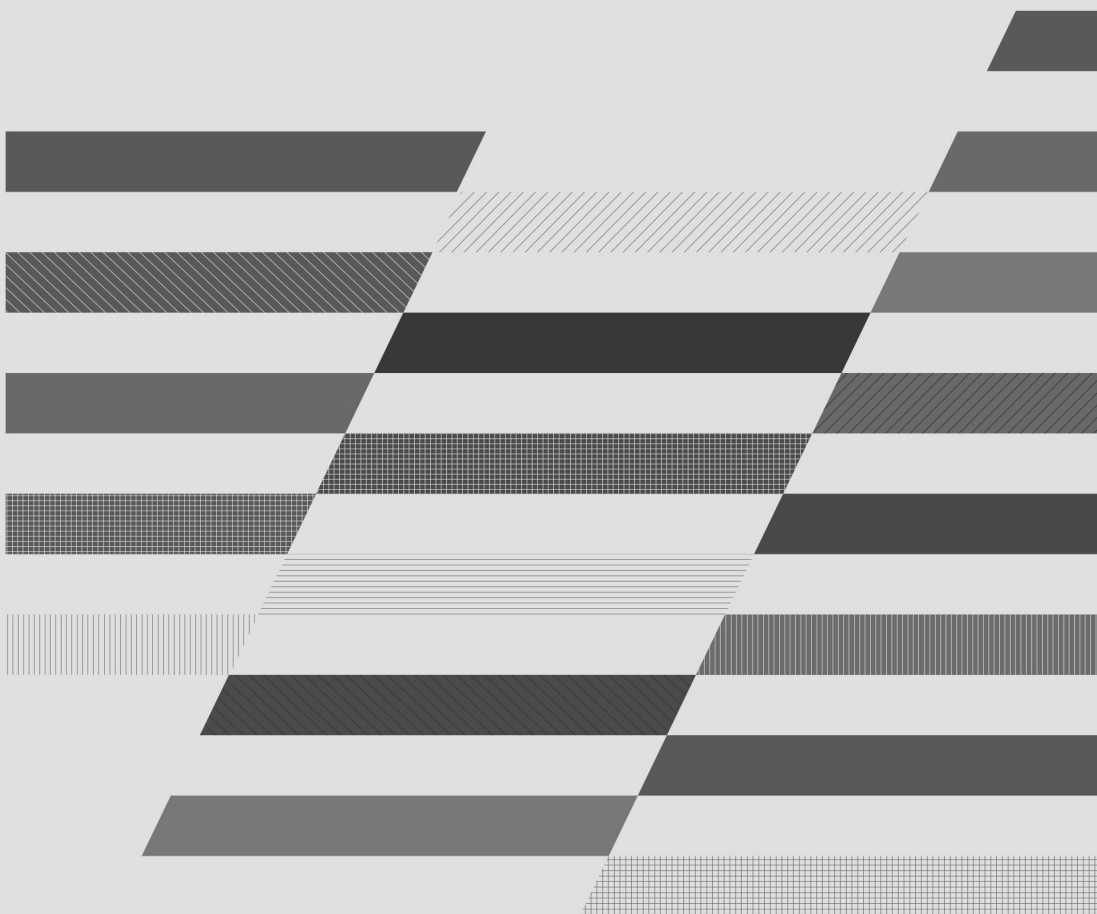
- 중장년 유형화 선행연구
 - 중장년 특성분석 및 유형화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에 도출된 중장년 유형별 특성 제시
 - 중장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및 활동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 후 본 연구목적에 맞게 활용
- 실증분석
 - 2021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유형화 분석
 - ANOVA 분석: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F값을 활용하여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검정하고, 각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통계기법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대상 개체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유사성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로부터 각각의 개체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는 분석기법(Romesburg, 2004)



제 2 장



선행연구 분석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의 50+관련 선행연구

- 50+세대가 속해있는 중장년층은 50세~64세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45세 혹은 40세를 포함하기도 함. 이들 연령대의 특징은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독립 등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세대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 전환기를 맞게 되는 시기라고 정의되기도 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성공적인 생애전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큰 세대인 만큼 이들의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50+세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중장년층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50+세대의 은퇴 과정이나 은퇴 이후 노후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50+세대의 삶의 만족도(삶의 질), 은퇴와 관련된 변화, 노후준비, 여가활동, 평생교육, 사회적 관계 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50+세대의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정주원·송현주, 2012; 강소량·문상호, 2012; 염인숙, 2019), 심리적 건강상태(임지숙 외, 2014; 염인숙, 2019), 대인관계 만족도(임지숙 외, 2014),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와 같은 경제적 능력(김선화·임왕규, 2015; 진주영·하규수, 2016), 노후준비(진주영·하규수, 2016; 염인숙, 2019) 등이 개인의 주관적 노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 변수로 보고 있음

- 50+세대가 은퇴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도 많이 존재함. 평균수명의 연장과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듯, 국내의 선행연구들 역시 개인의 은퇴를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마무리라고 보는 단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또 다른 삶의 한 과정으로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50+세대의 은퇴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은퇴과정 경로를 살펴본 연구(박경하, 2011), 은퇴결정유형에 집중한 연구(서여주, 2015), 은퇴 이후 소득과 재무설계 등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석상훈, 2010; 김은순 외, 2016), 퇴직자들의 사회관계를 다룬 연구(조지영·박태영, 2013)로 구분할 수 있음
 - 50+세대의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들로는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홍석태·양해술, 2008), 노후보장 기대감에 관한 내용(박종연 외, 2012),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내용(이병호·김진아, 2015), 노후재무 만족도에 관한 내용(권인탁, 2017) 등이 있음
 - 50+세대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여가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 한 김현정 외 (2016)와 여가유형 활동을 분석한 강은나(2016)가 대표적임
 - 50+세대의 평생교육에 관한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참여의지를 분석하거나(김남선·김만희, 2004),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참여율 및 희망률을 조사하였음(장경호·이미정, 2006)
 - 중장년의 사회통합감을 조사한 강현정(201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교육활동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음
-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은퇴, 노후준비와 여가활동, 평생교육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 건강, 대인관계, 교육,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 등의 요인이 활용되었으며, 해당 요인들은 중장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 국내의 50+세대에 관한 연구

연구진	종속변수	데이터	분석방법론	영향요인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정주원·송현주 (2012)	삶의 만족도 (주관적 노후인식)	국민노후 보장패널 3차	회귀분석	성별, 연령, 신체적 건강상태
강소량·문상호 (2012)	삶의 질	고령화 패널 2차	구조방정식 모형	상호작용 빈도 및 내용, 신체적 기능, 자기효능감
임지숙 외 (2014)	삶의 만족도	국민노후 보장패널 3~4차	구조방정식 매개분석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노후준비, 대인관계 만족도
정순돌·박지혜 (2014)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	위계적 회귀분석	성별, 학력, 주관적 건강, 주관적 경제, 사회적지지
김선화·임양규 (2015)	총체적 만족감	설문조사	ANOVA분석 다중회귀분석	주택소유 여부, 학력, 인지적 정보(퇴직에 대한 기대, 휴식으로의 전환)
진주영·하규수 (2016)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	회귀분석	가계소득,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염인숙 (2019)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	빈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학력
중장년층의 은퇴				
석상훈 (2010)	은퇴 이후 개인소득	국민노후 보장패널	의사결정 나무모형	교육수준, 은퇴경로, 성별, 퇴직사유, 직업상 지위, 연령
박경하 (2011)	은퇴과정 경로	한국노동패널 (2~6차)	최적일치법 군집분석	교육수준, 성별, 주된 일자리 유형(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 연령
조지영·박태영 (2013)	퇴직자 사회관계 유형	한국 고령화 패널(1~3차)	잠재 집단 분석	배우자 만족도, 아이들과의 관계(만족도, 함께 산 기간, 접촉 빈도, 재정 지원 정도)
서여주 (2015)	은퇴결정 유형	한국 고령화 패널(1~4차)	의사결정 나무모형	일자리의 주관적 기대감, 연령, 일을 하는 여건과 지지, 경제상태 만족도, 가구총소득, 자녀수
김은순 외 (2016)	은퇴 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심층인터뷰	액션러닝	재무교육(인생지도, 은퇴준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홍석태·양해술 (2008)	노후준비	설문조사	다중회귀분석 매개분석	노인교육필요성, 노인교육 참여욕구, 경력완성
박종연 외 (2012)	노후보장 기대감	한국 고령화 패널(2차)	다중회귀분석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약, 뇌혈관질환, 외래진료여부
이병호·김진아 (2015)	노후소득 보장	노인실태 조사(2014)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주관적 건강, 독거노인 유무, 연간소득, 생활수준, 거주지역
권인탁 (2017)	노후재무 만족도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모형	은퇴기대여부, 퇴직준비여부, 재무교육 만족도 및 경험

연구진	종속변수	데이터	분석방법론	영향요인
중장년층의 여가활동				
김현정 외 (2016)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유형	남성 중고령자 40명	Q분석	생애주된 일자리 퇴직 여부, 사회역할, 경제상태, 가족관계
강은나 (2016)	여가유형 활동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	순서형로직 회귀분석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종사지위, 주당 근로시간, 여가만족도, 직종(사무직 여부)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김남선·김만희 (2004)	평생교육 봉사활동 참여의지	설문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령, 건강상태, 성격, 생활형태, 직업형태, 봉사활동
장경호·이미정 (2006)	평생교육 참여율, 희망률	한국노동패널 (1~7차)	기술통계	연령, 직업교육 희망여부
중장년층의 사회통합감				
강현정 (2012)	사회통합감	설문조사	ANOVA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성별, 학력, 종교, 직업, 거주지역, 건강상태, 생활수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가단체활동 참여, 교육활동 참여

출처: 강소량 외(2018)의 표를 본 보고서의 연구 방향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함
 주: 실증분석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 독립변수들을 위주로 정리함

2. 해외의 선행연구

- 50+세대에 관련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도 및 노후생활에 관한 만족도, 행복감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대다수임. 이는 은퇴 및 경제적 활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외의 중장년층 선행연구들은 연령, 경제적 안정성, 신체상태, 심리적 요인, 사회적 구조, 사회참여 활동 등을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경제적 안정, 정서적 상태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Morrow-Howell 2016)가 있으며, Gerino et. al(2015)은 성공적 노년 생활의 구성 요소를 정서적 상태, 기능적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 참여 상태로 분류하였고, Kanning & Schlicht(2008)는 신체활동, 정서적 능력, 사회적 요인을 성공적 노년 생활에 필요한 요인으로 주장함
 - An Li et. al(2021), Bartram(2020), Takeshi et. al(2020)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이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그 밖에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 노년이나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중장년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참여나 여가활동,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이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역량에 대한 인식 등이 중장년층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뤄져야 함을 알 수 있음

〈표 2-2〉 해외의 50+세대에 관한 연구

연구진	종속변수	데이터	분석방법론	주요내용
An Li et. al (2021)	우울감, 삶의 만족도	Wave 2 (2013-2014) Wave 3 (2015-2016)	최대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45세 이상 중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서베이 분석. 연령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작용함
Bartram (2020)	삶의 만족도	World Values Survey	회귀분석 (Regression models)	노년에 이룰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반박함
Morrow-Howell (2016)	노후 만족도	Survey Data	다중회귀 분석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 중요
Gerino et. al (2015)	삶의 만족도	Panel Data	구조방정식 모형	성공적 노년 생활의 구성 요소 연구 ① 정서적 상태 ② 기능적 상태 ③ 인지적 상태 ④ 생산적 참여 상태
Takeshi et. al (2020)	삶의 만족도	the German Socio Economic Panel Study and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종단분석 횡단분석	북미와 유럽 모두 70세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 급감.
Kanning & Schlicht(2008)	삶의 만족도	Interview	서베이 인터뷰	성공적 노년 생활에 필요한 요인을 3가지로 분류 ① 생물학적 요인(신체활동) ② 심리적 요인(정서적 능력) ③ 사회적 요인(사회구조)
Mroczek & Spiro(2005)	삶의 만족도	Survey (1927 men)	cross-sectional analysis	삶의 만족도는 65세에서 정점을 보이며,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 신체적 건강, 결혼 상태
Bender(2004)	삶의 질	Literature Review	회귀분석 문헌연구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강조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Atchley & Kramer(2000) Fry(1992)	삶의 질	Panel Data	회귀분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강조(활동이론)

제2절 50+세대의 유형화

1. 라이프스타일 개념 및 유형화에 관한 변수

- 라이프 스타일이란 생활의식, 행동, 가치관, 행동의 복합체이며(Markin, 1974), 사회전체 혹은 일부 계층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임(송민혜, 2021).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Plummer(1974)의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s)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됨
 -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s)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활동(Activity)은 일, 취미, 휴가, 여가 등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가와 관련된 것이며, 관심(Interest)은 가족, 일, 유행, 음식 등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대한 측면을 의미하고, 의견(Opinion)은 자기자신, 사회적이슈,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임
- 중장년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중장년의 삶의 질이나 건강관련 연구가 다수였고, 2021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를 통해 50+세대의 활동, 관심, 가치관 영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았음
-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석은 이들의 활동, 관심, 가치관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이들의 생애설계와 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므로 5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형화 하기위해 의의를 갖는 요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분석에 활용될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50+세대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활동요인과 자원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활동요인은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내부지향적인 활동과 외부지향적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원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개인 자원과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활동요인 중 내부지향적 활동은 일, 학습, 종교 활동 등이 있으며, 외부지향적 활동은 봉사, 사교, 정치참여 등이 있음. 또한 자원요인 중 내부 자원은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관계 등이 있으며, 사회적 자원으로는 공적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음
 - 활동요인과 자원요인 중 50+세대 유형화를 통해 50+세대의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변수들은 봉사, 사교, 정치활동 등을 포함한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표 2-3〉 50+세대 유형화를 위한 이론 및 변수 정리

구분	관련이론	요인유형	독립변수	세부변수	
활동 요인	활동이론 분리이론 지속이론 목적이론 활동계획이론	내부지향적 활동	직업활동	(재)취업여부, 주 평균 근무시간	
			종교활동	종교단체 가입여부 및 참여빈도	
			문화학습활동	문화활동 가입여부, 평생교육 참여여부	
			운동활동	운동단체 가입여부 및 참여빈도	
		외부지향적 활동	봉사활동	자원봉사경험 여부 및 참여빈도	
			사교활동	사교단체가입 여부 및 참여빈도	
			정치활동	정치단체가입 여부 및 참여빈도	
자원 요인	교환이론 자원이론 교환자원이론	개인자원	경제력	월 총가구 소득, 월평균 용돈	
			건강	객관적 상태	만성질병 여부 및 질병의 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인식
		사회적관계	자녀, 형제/자매, 친구/이웃의 규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이웃의 만남횟수		
		사회자원	공적지원	연금수령경험 유무, 취업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이용경험유무 노인여가 서비스 이용경험유무 기타 노인우대제도 이용경험유무(대중교통 등)	

* 김원배(2009)와 황남희(2014)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2. 50+세대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1) 50+세대의 활동요인

- 50+세대 유형화는 크게 활동요인과 자원요인으로 구분 가능함. 활동요인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활동이론, 분리이론, 지속이론, 목적이론, 활동계획이론 등이 있음
 - Havighurst(1968)와 Lemon et. al(1972)이 정립한 활동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중장년층의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존재함. 즉,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은 중장년층일수록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Cumming & Henri(1961)에 의하여 제안된 분리이론은 은퇴가 다가온 중장년층의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킬수록 높은 생활만족감을 갖게 된다고 바라보는 입장임. 즉, 사회적 은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은퇴한 중장년층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함

- Atchley(1989)는 중장년층의 노화과정이 활동이론이나 분리이론 하나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적응 능력을 고려한 지속이론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잘 설명된다고 주장함. 다시 말해, 중장년층 및 노년의 삶은 인생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생주기 전체를 고려하여 그들의 삶과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는 발달이론으로도 불리기도 함
- 한편 50+세대의 활동은 내부지향적 활동과 외부지향적 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직업활동, 종교활동, 문화학습활동 등이 내부지향적 활동에 해당됨
 - 직업활동에서는 (재)취업여부, 주 평균 근무시간 등이 문화학습활동에서는 문화활동 가입여부, 평생교육 참여여부가 주요 세부변수로 고려됨. 또한 운동활동, 종교활동은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운동단체 및 종교단체)에 대한 가입여부 및 참여빈도가 세부변수에 포함됨
 - 반면 봉사활동, 사교활동, 정치활동 등은 외부지향적 활동에 속함. 해당 활동들은 각각 자원봉사경험 여부 및 참여빈도, 사교단체가입 여부 및 참여빈도, 정치단체가입 여부 및 참여빈도가 세부변수에 해당됨

2) 50+세대의 자원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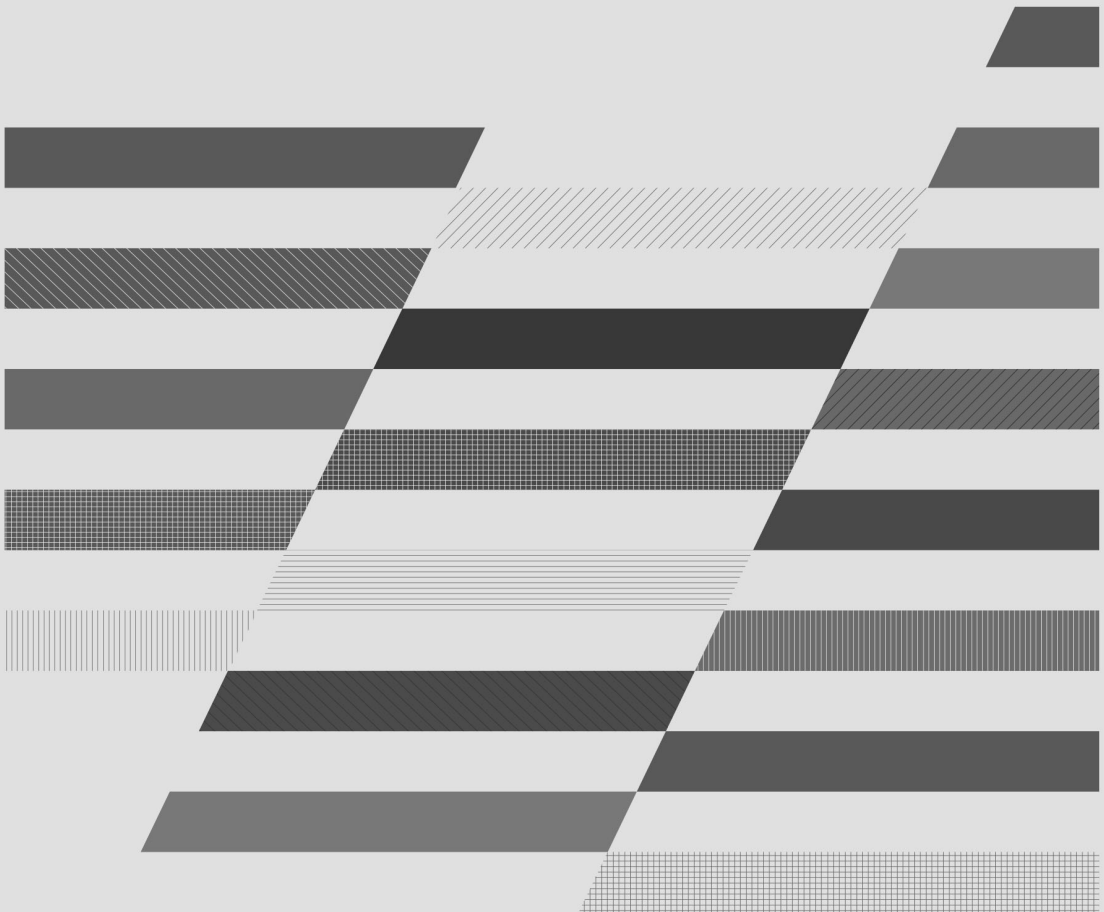
- 자원요인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교환이론, 자원이론, 교환자원이론 등이 있음. 교환이론은 사회심리적 모델에 기초한 이론으로 인간은 본래 합리적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가질 때, 이성적 선택을 통하여 비용보다는 보상 혹은 이익이 많은 경우에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한다는 내용임
- 자원이론은 건강, 지위 및 권위, 경제력, 공적 지원, 사회적 관계 등 중장년층이 가진 개인자원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자원이 중장년층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라고 보는 이론임
- 한편 50+세대의 자원은 개인적 차원의 자원과 사회적 차원의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구 소득, 용돈과 같은 경제력, 객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식으로 포괄되는 건강,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 등이 개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리고 연금수령 경험, 요양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 취업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은 사회적 자원 중 공적지원에 포함됨



제 3 장



서울시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제3장

서울시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 1개 집계구당 5가구 내외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목표 표본(2,200가구) 대비 455개의 집계구를 추출함.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DB를 활용했으며, 추출된 455개의 집계구에서 2,257가구(응답자 기준 3,036명)를 조사함

〈표 3-1〉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만 45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952년~1976년생)
유효 표본	• 2,257가구 (응답자 기준 3,036표본) -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조사대상 적격자일 경우, 전수조사 실시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s)
조사 방법	•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21. 05. 31. ~ 2021. 07. 16. (약 7주)

- 본 조사의 항목은 ‘일자리’, ‘활동’, ‘관심’, ‘의견’, ‘코로나19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 3-2>와 같음
 - 50+세대의 일자리에에는 현재 일자리 현황 및 경제활동 변화, 퇴직 및 창업 현황이 50+세대의 활동에는 사회참여, 여가활동, 소비행태 등으로 구성됨. 또한 50+세대의 관심은 건강 및 노후준비가 50+세대의 의견에는 사회문제 및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표 3-2>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내 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자리 현황 및 경제활동 변화 • 퇴직 현황 • 창업 현황 • 구직/이직 현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활동 현황 • 여가활동 현황 • 디지털 역량 현황 • 소비행태·성향 현황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현황 • 관심사 및 노후준비 현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및 정치적 의견 현황 • 삶의 질과 행복 현황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활동 범위 변화 • 디지털기기 사용량 변화 • 가사노동 및 돌봄 변화 • 소비행태 변화 • 생활비 및 지출 내역 변화 • 건강상태 변화 • 가족관계 변화 • 삶의 질 전반적·구체적 영향 및 전망

2. 모집단 총화 및 응답자 특성

1) 모집단 총화

○ 자치구 외 주택 유형을 복합 고려하여 총화를 실시함

- 1차 추출단위는 집계구로써 총화변수별로 집계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집계구를 선정함
- 2차 추출단위는 가구로써 최종 가구 명부를 지번 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집계구 당 5가구를 추출하였음
- 3차 추출단위는 가구 대 가구원이며, 성, 연령 정보를 포함한 가구원 명부를 작성하여 가구 내 적격 가구원인 만 45세~69세를 전수조사 함
- 조사대상 모집단을 살펴보면 5개 연령 그룹이 만 45~49세(421,721명), 만50~54세(415,261명), 만55~59세(420,728명), 만60~64세(384,275명), 만65~69세(265,645명)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조사대상 표본은 모집단에 최대한 비례하도록 연령별(만 45~49세, 만50~54세, 만55~59세, 만60~64세, 만65~69세), 지역별(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로 배분함
- 분석 대상자의 서울시 자치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송파구(207명, 6.8%), 강서구(173명, 5.7%)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종로구(44명, 1.4%) 중구(41명, 1.4%)가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여줌

〈표 3-3〉 모집단 총화변수별 총화 특성

시·도	권역	1차 총화(자치구)	2차 총화(주택유형)
서울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아파트/일반주택 (다세대, 연립 포함)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3-4〉 조사대상 모집단

행정구역별	모집단(단위: 가구)					계
	만45~49세	만50~54세	만55~59세	만60~64세	만65~69세	
서울특별시	421,721	415,261	420,728	384,275	265,645	1,907,630
종로구	6,396	6,444	6,943	6,010	4,057	29,850
중구	4,922	5,312	5,804	5,435	3,680	25,153
용산구	9,775	9,388	9,394	8,488	5,692	42,737
성동구	12,509	12,699	13,444	11,617	7,628	57,897
광진구	15,079	15,535	15,397	13,440	8,780	68,231
동대문구	13,760	14,111	14,998	14,409	10,216	67,494
종량구	16,595	18,918	20,822	18,621	12,612	87,568
성북구	19,653	18,733	18,294	16,915	11,644	85,239
강북구	13,464	14,170	15,357	14,605	10,518	68,114
도봉구	14,245	15,354	16,381	15,752	10,623	72,355
노원구	25,352	25,181	24,161	21,935	15,473	112,102
은평구	21,401	20,724	21,149	19,619	13,477	96,370
서대문구	12,940	12,910	13,123	11,869	8,100	58,942
마포구	16,782	14,868	14,050	12,314	8,065	66,079
양천구	22,272	21,799	20,627	17,837	12,376	94,911
강서구	24,939	23,831	25,581	24,694	16,722	115,767
구로구	17,139	16,802	18,055	16,742	12,221	80,959
금천구	9,787	11,136	12,271	10,578	7,301	51,073
영등포구	14,623	14,581	15,447	14,177	9,718	68,546
동작구	15,683	15,465	16,215	14,987	10,614	72,964
관악구	19,330	18,751	19,639	18,259	13,503	89,482
서초구	20,811	17,937	15,766	14,249	9,786	78,549
강남구	26,773	23,758	20,030	17,669	12,822	101,052
송파구	29,130	28,357	27,984	25,491	17,347	128,309
강동구	18,361	18,497	19,796	18,563	12,670	87,887

〈표 3-5〉 조사대상 표본 배분

행정구역별	표본설계(단위: 가구)					계
	만45~49세	만50~54세	만55~59세	만60~64세	만65~69세	
서울특별시	486	480	487	441	306	2,200
종로구	7	7	8	7	5	34
중구	6	6	7	6	4	29
용산구	11	11	11	10	7	50
성동구	14	15	16	13	9	67
광진구	17	18	18	16	10	79
동대문구	16	16	17	17	12	78
중랑구	19	22	24	21	15	101
성북구	23	22	21	20	13	99
강북구	16	16	18	17	12	79
도봉구	16	18	19	18	12	83
노원구	29	29	28	25	18	129
은평구	25	24	24	23	16	112
서대문구	15	15	15	14	9	68
마포구	19	17	16	14	9	75
양천구	26	25	24	21	14	110
강서구	29	28	30	28	19	134
구로구	20	19	21	19	14	93
금천구	11	13	14	12	8	58
영등포구	17	17	18	16	11	79
동작구	18	18	19	17	12	84
관악구	22	22	23	21	16	104
서초구	24	21	18	16	11	90
강남구	31	27	23	20	15	116
송파구	34	33	32	29	20	148
강동구	21	21	23	21	15	101

〈표 3-6〉 분석 대상자의 서울시 자치구별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3,036	100.0	
자치구	강남구	154	5.1
	강동구	149	4.9
	강북구	101	3.3
	강서구	173	5.7
	관악구	145	4.8
	광진구	121	4.0
	구로구	141	4.6
	금천구	89	2.9
	노원구	165	5.4
	도봉구	114	3.8
	동대문구	105	3.5
	동작구	113	3.7
	마포구	106	3.5
	서대문구	99	3.3
	서초구	126	4.2
	성동구	96	3.2
	성북구	133	4.4
	송파구	207	6.8
	양천구	146	4.8
	영등포구	122	4.0
용산구	72	2.4	
은평구	146	4.8	
종로구	44	1.4	
중구	41	1.4	
종각구	128	4.2	

2)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권역, 가구, 거주유형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응답자 특성은 아래의 <표 3-7>와 같음
- 남성과 여성은 각각 48.6%, 51.4%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은 만45세~69세의 중장년층을 5개 범위로 구분하였음. 연령의 경우에도 5개 구간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서울시 권역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5개로 나누었으며, 가구 구성원수 및 1인 가구 여부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주유형과 자가 및 전세 여부를 나타내는 주택 점유 형태, 최종학력 및 혼인상태도 응답자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임
- 가구소득은 6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소득에 따른 50+세대의 행동, 관심사, 가치관, 노후준비 등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창업자, 전업주부, 무직(퇴직포함) 등으로 고용형태를 분류하였음

<표 3-7> 응답자 세부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3,036	100.0
성 별	남성	1,475	48.6
	여성	1,561	51.4
연 령	만45-49세	707	23.3
	만50-54세	662	21.8
	만55-59세	658	21.7
	만60-64세	602	19.8
	만65-69세	407	13.4
권 역	도심권	157	5.2
	서북권	351	11.6
	서남권	929	30.6
	동북권	963	31.7
	동남권	636	20.9

	구분	사례수	비율(%)
가구 구성원수	1명	163	5.4
	2명	761	25.1
	3명	824	27.1
	4명	1,192	39.3
	5명 이상	96	3.2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163	5.4
	해당 없음	2,873	94.6
거주유형	아파트	1,731	57.0
	단독주택	275	9.1
	연립·다세대 주택	1,022	33.7
	오피스텔	8	0.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315	76.3
	전세	697	23.0
	월세/기타(사글세, 무상)	24	0.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32	50.5
	2·3년제 대학	563	18.5
	4년제 대학	898	29.6
	대학원 재학 이상	43	1.4
혼인상태	미혼	33	1.1
	기혼(사실혼 포함)	2,829	93.2
	별거, 이혼, 사별	174	5.7
가구 소득	100만원-199만원	137	4.5
	200만원-249만원	197	6.5
	250만원-299만원	195	6.4
	300만원-499만원	942	31.0
	500만원-699만원	1,161	38.2
	700만원 이상	404	13.3
고용형태	정규직(상용직)	1,002	33.0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11	10.2
	자영업/창업자	860	28.3
	전업주부	778	25.6
	무직(퇴직 포함)	85	2.8

3.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2021년에 진행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음
 - 군집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은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응답자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이제곱분석, ANOVA, 회귀분석 등 주요 기초통계분석에서 폭 넓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임. 특히 K-평균 군집분석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집단 수를 지정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분류해주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집단의 숫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
- 군집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료들의 상호연관성에 근거하여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을 분류하는 연구 기법이며(Anderberg, 1973),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변량자료의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나 자료 내 집단 분류를 위해 사용되어 왔음
- 특히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샘플 내의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군집분석은 요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집단별 유사성을 파악(김경외, 정성도 2017)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됨
-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50+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을 근본적인 목적에 두고 있고, 분석 방법 또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성격이 강함.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주요 변수들을 연구자가 선별하여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초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임
 - 특히 2020년에 국내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50+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비교를 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보다는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
- 군집분석은 목표 그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 결과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 따라서 유형화 된 집단의 수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집단 수를 조정해 가면서 단순히 통계적 분류가 아닌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집단 수를 선정함

- 군집 분석은 추출방법에 따라 계층적(hierarchical) 방법과 비계층적(non-hierarchical) 방법이 있음. 계층적 군집분석은 유사성이 높은 개체 순으로 개체를 묶어 가는 것이며,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고 설정한 군집의 중심에 가까운 개체를 결합하는 방식임(임찬수 외, 2010; 박연복 외, 2011)
 -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를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함. 그룹 내 유사한 집단의 분류에 대한 경험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유사한 집단의 수를 고정해 놓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며 요소별로 유사한 집단 수를 유연하게 조정함

4.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변수 및 측정지표

1) 분석 활용 문항

-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석을 위해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하여 활동, 디지털 역량, 관심사, 노후준비 영역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각종 활동, 50+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관심사에 대한 변수에 주목하였음

〈표 3-8〉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활용 문항

유형	분석활용 문항 및 내용	
① 50+세대의 활동	사회참여 활동	노동조합 단체 및 이익집단,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및 기부, 사회적 경제조직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운동 활동, 관광, 취미오락, 교양학습,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참여경로	대중매체, 가족, 직장
②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	OA활용, 생활서비스, SNS, 블로그 활동 및 미디어창작, 판매채널 개설, 새로운 기기·기술체험 및 활용, 활용의 어려움
③ 50+세대의 관심사	현재의 관심사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생계비(가계) 마련, 본인의 건강, 여가 및 취미활동, 노후준비
	사회문제 및 정치적 의견	SNS, 블로그 활동, 배지 혹은 스티커 부착,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언론기사 찾아보기, 주변 사람들과 공유, 특정 상품 불매, 구매,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 정책참여 채널(주민참여예산 등) 활동
④ 50+세대의 노후준비	보내고 싶은 노후형태	취미생활 / 소득창출 / 귀농·귀촌 등 전원생활 / 여행·관광 등

2) 50+세대 유형화 변수

- <표 3-9>는 서울시 50+세대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변수 및 라이프스타일을 측정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임.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변수들과 50+세대의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한 변수들 중 가장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인들을 추출함
 - 총 7개의 영역에서 서울시 50+세대의 사회참여 활동, 노후준비, 사회정치적 의견 등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은 최소 4개에서 25개까지의 측정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표 3-9> 영역별 유형화 분석을 위한 변수 및 측정지표

변수		방법/척도
① 사회참여 활동	정치적 단체 및 이익집단(정당, 후원회 등)	활동방법: 4개 활동정도: 5점
	노동조합단체(사업자단체, 직업조합 등)	
	시민단체(NGO, NPO 등)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입주자대표, 주민자치회 등)	
	자원봉사	
	기부 또는 후원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참여 경로	8개
활동의 중요성	5점	
② 여가활동	문화예술	유/무
	문화예술활동참여	
	스포츠 관람	
	운동 및 스포츠 활동	
	관광 및 야외 나들이	
	취미오락	
	교양학습	
	자원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모임활동	
	일 참여	추가적인 경제활동
일 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취·창업을 위한 스터디, 모임 등 참여		

변수		방법/척도	
	사회 참여	종교활동	
		정치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모임 참여	
	교육·여가·문화	자기계발	
		여가활동	
		개인적인 취미오락	
	사회적 관계	가족들과 더 어울림	
		친구/지인들과 더 어울림	
		다른 세대와 교류	
	건강관리	운동 등 건강관리	
	기타	기타	
③ 디지털역량	OA활용	문서 작성	5점 척도 (역량/필요성)
	생활서비스	정보 검색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앱	
		키오스크	
	SNS	SNS 활용	
		메신저	
	블로그활동/ 미디어창작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판매채널 개설 등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새로운 기기· 기술체험 및 활용	AI 스피커 사용	
드론 조종 및 활용			
어려움	사용방법 모름	1순위/2순위	
	사용방법 및 활용방법을 배우기 어려움		

		변수	방법/척도
④ 관심사	현재 관심사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1순위/2순위
		생계비(가계) 마련	
		본인의 건강	
		여가 및 취미활동	
	보내고 싶은 희망 노후 형태	노후준비	1순위/2순위
		취미생활	
		소득창출	
		귀농·귀촌 등 전원생활	
⑤ 노후 준비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인	여행·관광	1순위/2순위
		충분한 생활비	
		건강관리	
		가족(자녀 포함) 관계	
	노후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취미, 여가	5점 척도 (필요성)
		주거의 안정성	
		재무설계	
		취미·여가, 사회참여(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⑥ 사회문제 및 정치적 의견	참여 경험	일자리, 경력관리	5점 척도 (참여정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SNS, 블로그 등에 글 올리기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스티커 부착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사회·정치 문제에 관련된 언론기사 찾아보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공유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 불매, 구매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정책참여 채널(주민참여예산 등) 활동			
⑦ 정책분야	필요한 정책	노후설계 지원	1순위/2순위
		정년퇴직 연령기준의 연장	
		소득보장(연금 조기 지급 등)	
		고용 지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3) 사회경제적 변수 데이터

-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소득형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 보다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위해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변수(소득, 가구원 수)를 세분화시켜 변수로 포함시킴
 - 중장년층의 활동, 관심사, 가치관 항목에 대한 탐색적 분석 후,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하여 심층분석을 실시 함. 이를 통해 중장년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유형화 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욕구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조사의 표본 설계는 자치구별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그 외 가구원 구성 비율 및 소득 수준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표 3-10>은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나타내며, ‘남성’이 51.4%, ‘여성’이 48.6%로 고른 응답율을 보이고 있음

<표 3-10> 응답자의 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성	1561	51.4	51.4
여성	1475	48.6	48.6
합계	3036	100.0	100.0

- <표 3-11>은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나타냄.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들은 예비 50+세대 및 노년층도 포함하고 있음.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5세부터 69세까지의 응답자들도 비교적 고른 응답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48세가 7.7%로 가장 많았고 69세가 1.2%로 가장 적게 분포함. 5세 단위로 연령층을 나누어 보면 45~49세 23.3%, 50~54세 21.8%, 55~59세 21.7%, 60~64세 19.8%, 65~69세 13.4%로 나타나 연령층 또한 비교적 고른 응답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응답자의 연령

연령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45	86	2.8	2.8
46	150	4.9	7.8
47	169	5.6	13.3
48	234	7.7	21.0
49	68	2.2	23.3
50	64	2.1	25.4
51	101	3.3	28.7
52	181	6.0	34.7
53	205	6.8	41.4
54	111	3.7	45.1
55	87	2.9	48.0
56	144	4.7	52.7
57	150	4.9	57.6
58	199	6.6	64.2
59	78	2.6	66.8
60	56	1.8	68.6
61	134	4.4	73.0
62	191	6.3	79.3
63	151	5.0	84.3
64	70	2.3	86.6
65	71	2.3	88.9
66	110	3.6	92.6
67	100	3.3	95.8
68	90	3.0	98.8
69	36	1.2	100.0
합계	3036	100.0	

- 〈표 3-12〉는 응답자들의 가구형태를 분석한 것으로, 가구형태는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로 나뉘어 짐. 1세대 가구는 부부 혹은 형제/자매 거주 형태이며, 2세대 가구는 부모와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유형임. 3세대 가구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임

-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5.6%, 부부끼리 살거나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하는 '1세대 가구'는 23.1%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가구형태는 부모와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로써 70.4%의 응답율을 보임.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핵가족 현상을 반영하듯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 응답율은 0.8%에 불과함

〈표 3-12〉 응답자의 가구형태

가구형태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인가구 (혼자거주)	171	5.6	5.6
1세대 가구 (부부끼리 살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702	23.1	28.8
2세대 가구 (부모와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	2136	70.4	99.1
3세대 가구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	24	0.8	99.9
기타	3	0.1	100.0
합계	3036	100.0	100.0

- 응답자들의 가구원 구성을 살펴보면 4명이 39.3%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7.1%, 2명이 24.7% 순으로 나타남. 가구 구성원 1명은 5.7%, 5명은 2.9%로 나타남. 가구 형태 및 가구원 수를 종합해 보면 가구원이 부부 외에 자녀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4명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경향을 보임

〈표 3-13〉 응답자의 가구원 구성

구성원 수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173	5.7	5.7
2	751	24.7	30.4
3	824	27.1	57.6
4	1192	39.3	96.8
5	87	2.9	99.7
6	7	0.2	99.9
9	2	0.1	100.0
합계	3036	100.0	

- 응답자의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500만원~599만원이 23.3%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499만원이 18.5%, 600만원~699만원이 15.0%, 300만원~399만원이 12.5% 순으로 나타남. 300만원 미만은 17.4%, 700만원 이상은 13.3%로 나타나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4〉 응답자의 소득 분포

소득 구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0만원 미만	7	0.2	0.2
100만원 ~ 149만원	49	1.6	1.8
150만원 ~ 199만원	81	2.7	4.5
200만원 ~ 249만원	197	6.5	11.0
250만원 ~ 299만원	195	6.4	17.4
300만원 ~ 399만원	381	12.5	30.0
400만원 ~ 499만원	561	18.5	48.5
500만원 ~ 599만원	706	23.3	71.7
600만원 ~ 699만원	455	15.0	86.7
700만원 ~ 799만원	187	6.2	92.9
800만원 이상	217	7.1	100.0
합계	3036	100.0	

- 아래 표는 유형화 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적 변수 코딩에 관한 내용임.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소득형태를 설문 문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코딩하여 활용함

〈표 3-15〉 영역별 유형화 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적 변수 코딩

변수명	코드
성별	1 = 남성, 2 = 여성
연령	① 만 45-49세 ② 만 50-54세 ③ 만 55-59세 ④ 만 60-64세 ⑤ 만 65-69세 ※ 만 45세 미만(1977년 이후 출생) 혹은 만 70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조사 대상 제외
최종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교(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소득형태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99만원 ⑦ 400~499만원 ⑧ 500~599만원 ⑨ 600~699만원 ⑩ 700~799만원 ⑪ 800만원 이상 ※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구 전체의 월수입

제2절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실증분석

- 본 절에서는 서울시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 여가활동, 디지털 역량, 관심사 등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비슷한 특성으로 군집화가 되는 각 유형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즉, 각 유형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켜 세분화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1) 사회활동 참여경로 군집의 타당성 검증

- 본 연구에서 군집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의 군집 수를 도출하기 위해 K-평균 군집 분석을 활용했으며, ANOVA 분석을 통해 산출된 F값과 유의확률을 확인하여 모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함
- 아래에 제시된 <표 3-16>에서는 사회활동의 참여 경로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활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집단 내 비교를 통해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군집을 최적의 모형으로 설정함. 다만 군집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ANOVA의 특성상 자유도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군집의 개수는 3개~5개 내외로 한정함
- ANOVA 분석을 통해 군집의 개수를 3개부터 5개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F값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가 4개인 것을 도출함. 군집의 개수를 3개와 5개로 적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적절한 군집 모형으로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군집이 3개인 유형의 경우 직장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5개 군집의 경우 사회 참여활동 유무,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가족·이웃·친구에 대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기본 가정을 충족할 수 있는 모델로 보기 어려움
 - 반면, 군집의 개수를 4개로 설정한 유형에서는 정치적 단체 및 이익집단,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기부 또는 후원,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참여 경로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군집 모형으로 정의함

〈표 3-16〉 사회활동 참여경로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변수	3개군집	4개군집	5개군집
	F값	F값	F값
사회참여 활동 유무	0.827	0.654	1.611
정치적 단체 및 이익집단	0.917***	161.173***	121.973***
노동조합단체	5.965***	197.335***	147.198***
시민단체	2.093***	544.983***	409.042***
지역사회 공모임	2.218***	28.799***	21.503***
자원봉사	0.420***	16.877***	13.323***
기부 또는 후원	6.429***	30.249***	25.250***
사회적 경제조직	0.836***	58.733***	44.369***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0.068	0.075	1.101
가족, 이웃, 친구	0.583*	2.220*	2.787*
직장	13.195***	8.863***	4.175***

주1) *P<0.1, **P<0.05, ***P<0.001

주2) 5개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지표별 F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에 별도로 음영을 표시함

- 군집 모형의 세부적인 분석에 앞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내용은 〈표 3-17〉임.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학력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주목하면, 소득과 학력에 대한 변수는 사회참여활동을 분석할 때 핵심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반면에 성별, 권역, 가족 구성원 수 등 다른 독립변수에 의한 응답자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절에서는 가구 소득과 학력 수준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각종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50+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 및 범위에 대해 유형화 하여 살펴보고자 함

〈표 3-17〉 사회참여활동 여부 세부특성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36	15.1	84.9
성 별	남성	1,475	14.6	85.4
	여성	1,561	15.6	84.4
연 령	만45-49세	707	14.7	85.3
	만50-54세	662	14.4	85.6
	만55-59세	658	16.1	83.9
	만60-64세	602	15.6	84.4
	만65-69세	407	14.7	85.3
권 역	도심권	157	11.5	88.5
	서북권	351	25.4	74.6
	서남권	929	11.4	88.6
	동북권	963	20.7	79.3
	동남권	636	7.4	92.6
가구 구성원수	1명	163	7.4	92.6
	2명	761	13.8	86.2
	3명	824	18.2	81.8
	4명	1,192	15.3	84.7
	5명 이상	96	10.4	89.6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163	7.4	92.6
	해당 없음	2,873	15.6	84.4
거주유형	아파트	1,731	17.3	82.7
	단독주택	275	16.7	83.3
	연립·다세대 주택	1,022	11.0	89.0
	오피스텔	8	12.5	87.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315	15.9	84.1
	전세	697	12.8	87.2
	월세/기타(사글세, 무상)	24	8.3	91.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32	13.6	86.4
	2·3년제 대학	563	15.6	84.4
	4년제 대학	898	16.8	83.2
	대학원 재학 이상	43	27.9	72.1
혼인상태	미혼	33	15.2	84.8
	기혼(사실혼 포함)	2,829	15.6	84.4
	별거, 이혼, 사별	174	7.5	92.5
가구 소득	100만원-199만원	137	8.8	91.2
	200만원-249만원	197	7.6	92.4
	250만원-299만원	195	11.8	88.2
	300만원-499만원	942	11.7	88.3
	500만원-699만원	1,161	19.3	80.7
	700만원 이상	404	18.6	81.4
고용형태	정규직(상용직)	1,002	14.3	85.7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11	16.0	84.0
	자영업/창업자	860	16.0	84.0
	전업주부	778	14.8	85.2
	무직(퇴직 포함)	85	16.3	83.7

2) 사회활동 참여경로 군집분석

- 50+세대의 사회참여활동과 활동의 참여경로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군집별로 사회참여활동 유형을 분석할 수 있음
 - 1유형은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및 ‘기부 또는 후원’ 유형으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2유형은 정치적 단체 및 이익집단,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등과 같은 정치적 성격의 사회활동에 직장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다른 요인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3유형의 경우는 ‘직장’을 통해 반사회, 입주자대표, 주민자치회 등과 같은 ‘지역사회 공공모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참여하는 특성이 나타남. 다만 지역사회 공공모임이라는 목적에 있어 1유형과 3유형은 유사하지만 1유형은 자원봉사적인 측면이 강하고, 3유형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4유형은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중장년층의 ‘기부 또는 후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

〈표 3-18〉 사회활동 참여경로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사회참여 활동 유무	-.675	.072	-.498	-.262
정치적 단체 및 이익집단	.207	.649	-.040	.312
노동조합단체	-.022	.795	.247	-.044
시민단체	.088	.804	.039	.020
지역사회 공공모임	.585	.031	.551	-.061
자원봉사	.541	.292	-.051	.252
기부 또는 후원	.431	.349	.072	.489
사회적 경제조직	.181	.158	.692	.240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076	.035	.073	.882
가족, 이웃, 친구	.799	.068	-.025	-.176
직장	-.101	.079	.841	-.079

주) 각 유형별 지표별 평균값이 높은 변수들은 별도로 음영을 표시함

3)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군집의 타당성 검증

- ANOVA 분석을 통해 군집수를 5개부터 7개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F값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가 5개인 것을 도출해냄. 5개 군집을 최적 모형으로 설정한 것은 군집별 비교를 통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최적 모형으로 설정함

〈표 3-19〉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변수	5개군집	6개군집	7개군집
	F값	F값	F값
사회참여 활동 유무	5.136***	1.968*	5.326***
노동조합단체, 이익집단	0.510	0.598	1.506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	3.420**	1.365	3.391**
자원봉사, 기부 또는 후원	5.394***	4.043***	4.708***
사회적 경제조직	2.273**	1.252	1.034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13.508***	11.718***	11.741**
가족, 이웃, 친구	1.960*	1.638	1.825
직장	5.210***	3.508**	4.989***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6.701***	4.236***	9.304***
스포츠 관람 및 운동 활동	4.146**	3.093**	3.571**
관광, 취미오락, 교양학습	1.331	0.916	0.810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0.938	0.384	0.800
일 참여	2.127*	1.252	2.092
사회 참여	0.059	0.740	1.137
사회적 관계	0.455	0.618	0.41
건강관리	0.282	0.276	0.337
남성	2.450**	1.632	1.005
여성	1.718*	1.475	1.297
연령	379.946***	257.005***	324.102***
소득	430.676***	311.638***	368.974***
학력	470.025***	292.316***	427.981***

주) *P<0.1, **P<0.05, ***P<0.001

4)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군집분석

- 50+세대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의 군집분석에서는 사회참여활동, 참여경로, 여가활동, 향후 여가시간 활용방안 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과 소득, 학력에 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소득과 학력은 앞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도 주요 변수로 분류되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성별 또한 분석대상에 포함됨. 스포츠 관람, 운동 활동 등 외향적인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등의 여가활동의 범위는 가구소득 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여건에서는 영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비중이 넓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1유형은 직장을 통해 노동조합단체와 이익집단 등 정치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2유형은 남성, 고학력 계층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 3유형의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가족과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의 특성을 지님.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층에서 자원봉사 및 지역 활동에 많이 참여함
 - 4유형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및 관광 등에 참여가 활발함
 - 5유형의 특성은 현재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에 참여하는 그룹으로 향후 사회 참여나 일을 계속할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3-20〉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군집분석 I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 활동 유무	-.703	.033	-.454	-.001	-.089
노동조합단체, 이익집단	.774	-.092	.165	.039	.013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	.149	-.056	.636	.112	.251
자원봉사, 기부 또는 후원	.190	.053	.714	.040	.111
사회적 경제조직	.690	.045	.149	-.099	-.093
참여경로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066	.069	.543	-.143	-.116
가족, 이웃, 친구	.339	-.098	.434	.088	-.180
직장	.682	.174	-.260	.003	.123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033	-.105	-.005	.586	.054
스포츠 관람 및 운동 활동	-.142	.253	-.074	.625	.093
관광, 취미오락, 교양학습	-.111	-.044	.060	.621	-.059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115	-.018	-.004	.655	.001
향후 여유시간 활용					
일 참여	-.091	.091	-.060	-.391	.384
사회 참여	.059	-.104	.103	.095	.825
사회적 관계	-.041	-.017	-.006	.072	-.334
건강관리	.055	.027	-.021	.090	-.365
사회경제적 변수					
남성	.026	.977	.010	-.023	-.039
여성	-.026	-.977	-.010	.023	.039
연령	.005	.083	.049	-.018	-.040
소득	.099	-.011	.100	.199	-.059
학력	.007	.304	.179	.070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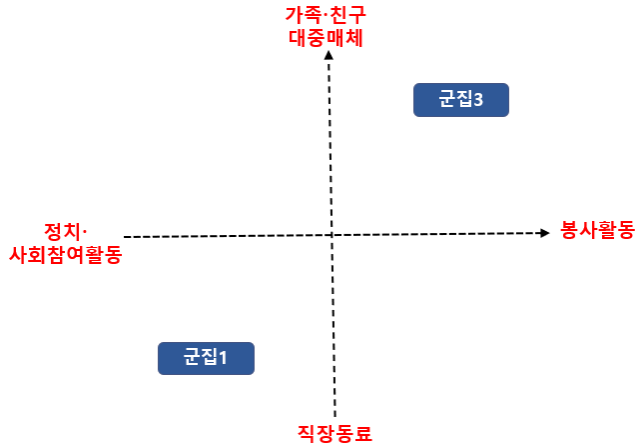
-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관한 집단별 특성을 통해 총 5개의 군집 유형을 도출함. 군집 유형별 세부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과 학력 변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남. 집단으로 세분화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군집 2, 군집 3, 군집 4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으로 분류된 계층에서 문화예술분야 및 스포츠 참여하는 점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군집 1과 군집 5는 소득 혹은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사회참여를 하는 활동하는 유형임. 특히 군집 1은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소속된 집단의 참여를 통해 활동 참여가 직장을 통해 참여한다는 점, 군집 5는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의 공공모임에 대한 참여 유형으로 소득, 학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응답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 관심 분야에 따라 참여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21〉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관한 집단별 특성 I

유형	유형 정의	군집 특성
군집 1	정치·사회 활동 참여형	- 노동조합단체, 이익집단 등 정치적 성격의 사회활동은 활동참여 경로가 주로 직장 - 직장을 통한 정치사회적 활동 참여형
군집 2	스포츠·여가 활동 참여형	- 스포츠 관람 및 운동 활동은 남성, 고학력층에서 많이 참여 - 고학력 남성의 스포츠 활동 여가 참여형
군집 3	사회봉사활동 참여형	- 접근이 비교적 쉬운 가족·친구 및 대중매체를 통해 자원봉사, 기부·후원활동 참여 -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상대적 고소득, 고학력층에서 자원 봉사 및 지역활동 참여 - 가족과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참여형
군집 4	고소득 계층의 여가 선호형	-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관광·종교 활동 참여가 활발함 - 고소득 계층의 여가활동 선호형
군집 5	향후 사회참여 추구형	-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을 참여하는 그룹에서 향후 사회 참여를 계속할 의향 높음 - 지역사회 공공모임 활동을 통한 향후 사회참여 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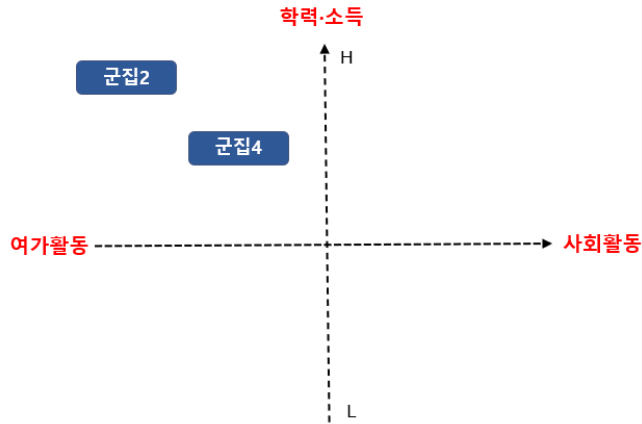
- 또한 각 활동 참여 경로와 군집 유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참여 유형을 X축, 가족, 친구와 직장동료의 관계를 Y축으로 설정하여 군집별 유형을 살펴 보았음
 - 군집 1은 직장 동료를 통해 노동조합, 이익집단에 참여하는 유형이며, 군집 3은 가족과 대중매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나타남. 유사한 군집의 특성을 보이는 구성원 간 매개체에 대해 군집 1은 직장, 군집 3은 가족, 친구 등을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참여 경로에 따른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1은 직장동료를 통해 노동조합, 이익집단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이었으며, 군집3은 가족과 대중매체를 통해 자원봉사,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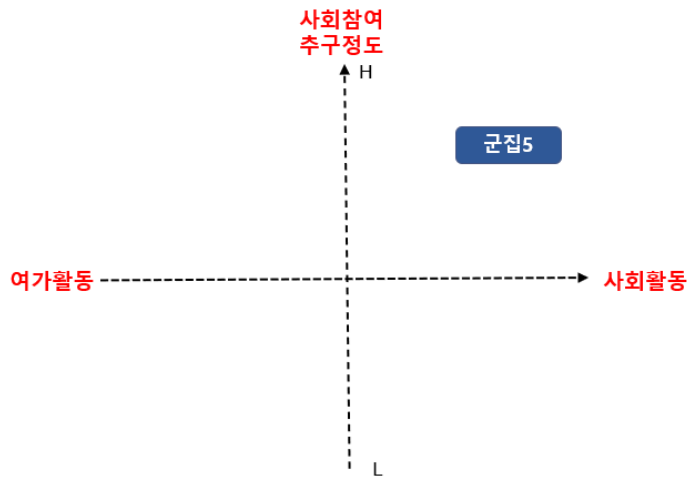
[그림 3-1] 활동참여 경로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 아래에 제시된 군집 2와 군집4는 학력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이 유사하다는 특징에서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음. 학력 및 소득, 사회참여 추구정도에 따른 군집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군집2는 고학력, 고소득 계층의 스포츠 및 여가활동 참여로 나타남
 - 군집4는 고소득 계층에서 문화예술, 종교활동 등에 참여함
 - 군집5는 지역사회 공공모임 활동을 통한 향후 사회참여활동을 추구하는 특성이 나타남
- 군집 2와 군집 4는 소득 수준이나 학력 수준이 유사한 계층 구성원끼리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및 여가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확대 해석을 한다면, 골프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일정한 소득 수준 및 학력을 통해 결성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참여 활동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그림 3-2] 학력 및 소득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 반면 군집 5는 군집 1~4집단과 달리 단독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에서 별도의 집단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음 시민단체, 공공모임 등을 통해 향후 사회활동을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집1~군집4와 대비되는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3] 사회참여 추구정도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살펴보면, 총 5개의 군집이 추출됨에도 불구하고 군집2, 군집4는 소득과 학력을 기반으로 매우 밀접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군집 5의 경우 타 군집들과 이질적인 변수들로 인해 별도의 군집으로 분류된 유형임

- 사회경제적 변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하여 중장년층의 참여활동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별로 정책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소득과 가구원 수, 활동 영역 사이에 상관관계가 큰 군집이 형성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음. 이는 가구 소득이 크더라도 가구 형태 및 가구원 구성원 수에 영향을 받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에 지출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 1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원의 수가 많고 이에 따른 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문화 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관광,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2유형처럼 현재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에서는 향후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질 경우 교육, 여가, 문화활동에 좀 더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3유형에서는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가구원의 수가 적은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보임. 이는 자녀들의 독립 후 중년의 부부들로 구성된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자녀 교육, 독립 등의 지출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여가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22〉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군집분석II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 활동 유무	-.126	.387	.060
노동조합단체, 이익집단	.037	-.089	-.101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공공모임	.079	-.229	.042
자원봉사, 기부	.177	-.251	.006
사회적 경제조직	-.003	.006	-.033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299	.160	.511
스포츠 관람, 운동 활동	.191	.237	.556
관광, 취미오락, 교양학습	.270	.215	.546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290	.077	.577
향후 여유시간 활용			
일 참여	-.074	.000	-.369
사회 참여	.009	-.062	-.050
교육, 여가, 문화	.016	.844	-.137
사회적 관계	.023	-.792	.377
건강관리	-.042	-.025	-.075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056	-.054	-.040
연령	-.680	-.045	.201
가구형태	.851	-.037	-.212
가구원 구성	.846	-.041	-.268
소득형태	.800	-.021	-.071

〈표 3-23〉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에 관한 집단별 특성II

유형	유형 정의	군집 특성
군집 1	전반적 여가활동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수가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고소득 계층의 여가활동 선호형 -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종교활동 등 전반적인 여가활동 참여 및 수요가 높은 집단
군집 2	향후 여유시간 활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경우 교육, 문화활동에 좀 더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경향 나타남 - 이 그룹은 현재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성을 보임 - 현재의 사회참여와 미래의 여가활동 수요가 중첩되는 집단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룹으로 예상됨
군집 3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활발함 -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가구원의 수가 적은 특성 - 자녀를 독립시킨 후 배우자 혹은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그룹으로 추정

○ 사회경제적 변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기존 모형에 활용되어 있는 성별, 연령, 가구 형태, 가구원 구성, 소득 형태 등 총 5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권역, 자치구 등 지역에 관한 변수, 주택 점유 유형 및 형태에 대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여가활동에 대해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동일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분석 모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1)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기술통계

○ 50+세대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평균 변수값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변수별로 활용역량 및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디지털 역량의 기술통계는 5점 만점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거나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24〉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디지털 역량 능숙함	문서 작성	2.86
	정보 검색	3.92
	예약/예매	3.55
	금융서비스	3.75
	정부행정서비스	3.30
	쇼핑앱	3.33
	키오스크	3.32
	SNS 활용	2.84
	메신저	4.12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2.36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2.19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2.20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1.99
	AI 스피커 사용	2.19
드론 조종 및 활용	1.60	
디지털 역량 필요성	문서 작성	3.35
	정보 검색	4.10
	예약/예매	3.94
	금융서비스	4.05
	정부행정서비스	3.76
	쇼핑앱	3.74
	키오스크	3.70
	SNS 활용	3.19
	메신저	4.14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2.76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2.62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2.64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2.48
	AI 스피커 사용	2.64
드론 조종 및 활용	2.16	

〈표 3-25〉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연령대별 평균 수준

변수	평균	연령대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디지털 역량 능숙함	문서 작성	2.86	3.63	3.20	2.81	2.20	2.00
	정보 검색	3.92	4.34	4.15	3.95	3.63	3.20
	예약/예매	3.55	4.17	3.89	3.61	2.97	2.67
	금융서비스	3.75	4.21	4.06	3.89	3.30	2.91
	정부행정서비스	3.30	3.88	3.62	3.31	2.77	2.53
	쇼핑앱	3.33	3.98	3.69	3.40	2.75	2.35
	키오스크	3.32	3.87	3.64	3.35	2.84	2.48
	SNS 활용	2.84	3.47	3.15	2.82	2.34	2.03
	메신저	4.12	4.36	4.27	4.16	3.95	3.69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2.36	2.93	2.62	2.28	1.90	1.76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2.19	2.70	2.41	2.14	1.77	1.63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2.20	2.61	2.37	2.18	1.84	1.74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1.99	2.41	2.15	1.98	1.66	1.53
	AI 스피커 사용	2.19	2.67	2.35	2.20	1.81	1.66
	드론 조종 및 활용	1.60	1.84	1.70	1.62	1.39	1.33
디지털 역량 필요성	문서 작성	3.35	3.77	3.52	3.34	2.99	2.86
	정보 검색	4.10	4.34	4.23	4.14	3.92	3.71
	예약/예매	3.94	4.22	4.10	3.97	3.71	3.51
	금융서비스	4.05	4.28	4.21	4.06	3.86	3.69
	정부행정서비스	3.76	4.04	3.93	3.79	3.52	3.30
	쇼핑앱	3.74	4.03	3.92	3.79	3.47	3.23
	키오스크	3.70	3.98	3.85	3.73	3.49	3.22
	SNS 활용	3.19	3.56	3.35	3.16	2.91	2.72
	메신저	4.14	4.28	4.26	4.17	4.02	3.88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2.76	3.16	2.92	2.74	2.45	2.30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2.62	2.97	2.77	2.62	2.34	2.18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2.64	2.98	2.77	2.62	2.38	2.24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2.48	2.81	2.66	2.46	2.20	2.08
	AI 스피커 사용	2.64	2.95	2.75	2.68	2.41	2.21
	드론 조종 및 활용	2.16	2.42	2.24	2.16	1.97	1.85

- 디지털 역량에 대한 능숙함과 필요성은 5점 만점으로 적용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점, 매우 필요한 경우는 5점으로 적용하여 연령대를 5세 단위로 세분화 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 5세 단위별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능숙함과 필요성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 구간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역량 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메신저의 경우, 능숙함에 대한 척도를 살펴보면, 45세~49세는 4.36점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4.27점, 4.16점, 3.95점, 3.69점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디지털 역량의 능숙함 수준에서 디지털 역량에 대한 필요성 점수를 뺀 후 각 역량별로 점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음수가 나타나 응답자 모든 연령에서 디지털 역량에 능숙하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디지털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0에 가깝거나 혹은 양수로 나타났다면, 필요성 이상으로 능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니즈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26〉 디지털 역량 유형화 지표 연령대별 평균 수준

	변수 (능숙함 - 필요성)	평균	연령대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디지털 역량 비교	문서 작성	-0.49	-0.14	-0.32	-0.53	-0.79	-0.86
	정보 검색	-0.18	0.00	-0.08	-0.19	-0.29	-0.51
	예약/예매	-0.39	-0.05	-0.21	-0.36	-0.74	-0.84
	금융서비스	-0.30	-0.07	-0.15	-0.17	-0.56	-0.78
	정부행정서비스	-0.46	-0.16	-0.31	-0.48	-0.75	-0.77
	쇼핑앱	-0.41	-0.05	-0.23	-0.39	-0.72	-0.88
	키오스크	-0.38	-0.11	-0.21	-0.38	-0.65	-0.74
	SNS 활용	-0.35	-0.09	-0.20	-0.34	-0.57	-0.69
	메신저	-0.02	0.08	0.01	-0.01	-0.07	-0.19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0.40	-0.23	-0.30	-0.46	-0.55	-0.54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0.43	-0.27	-0.36	-0.48	-0.57	-0.55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0.44	-0.37	-0.40	-0.44	-0.54	-0.50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0.49	-0.40	-0.51	-0.48	-0.54	-0.55
	AI 스피커 사용	-0.45	-0.28	-0.40	-0.48	-0.60	-0.55
드론 조종 및 활용	-0.56	-0.58	-0.54	-0.54	-0.58	-0.52	

- 디지털 역량과 필요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필요성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정보/검색(-0.18점)으로 나타남. 해당 항목은 능숙함에 대한 점수(3.92점) 대비 필요성(3.94점)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음. 즉, 정보검색정도의 역량은 중장년층이 고루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디지털 역량 및 필요성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드론 조종 및 활용’(-0.56점),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및 ‘문서 작성’(각각 -0.49점) 등으로 나타남. 해당 영역은 일활동을 수행하거나 메신저나 정보검색과 같은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보다는 상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항목임
-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65세~69세의 연령대에서는 문서 작성(-0.86점), 쇼핑앱(-0.88점), 예약 및 예매(-0.84점)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항목에 대해 실제 역량 대비 필요성의 차이가 거의 1점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항목에 대한 디지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본인의 실제 역량은 낮은 수준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금융 서비스의 경우, 59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0.17점 수준을 보이면서 40대와 50대의 연령대별 비교를 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60세~64세는 -0.74점, 65세~69세는 -0.84점으로 필요성 대비 역량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군집 분석을 통해 50+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2) 디지털 역량 군집의 타당성 검증

- ANOVA 분석을 통해 군집수를 4개부터 6개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본 결과, F값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가 5개인 것을 도출해 냄

〈표 3-27〉 디지털 역량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변수	4개군집	5개군집	6개군집
	F값	F값	F값
디지털 활용 역량			
문서 작성	422.821	977.865	597.697
정보 검색	228.291	452.079	300.148
예약/예매	384.757	898.993	597.776
금융서비스	319.749	641.513	444.096
정부행정서비스	349.284	693.861	445.985
쇼핑앱	434.605	918.078	591.876
키오스크	366.422	689.537	440.464
SNS 활용	436.722	743.356	444.008
메신저	66.614	163.370	110.598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482.467	560.501	340.814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447.165	501.137	276.880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313.080	283.594	171.076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411.241	343.109	211.756
AI 스피커 사용	311.120	383.033	215.621
드론 조종 및 활용	162.697	167.507	109.044
디지털 역량 필요성			
문서 작성	206.758	355.910	223.462
정보 검색	128.019	226.046	134.163
예약/예매	157.707	266.337	164.838
금융서비스	111.883	213.478	123.432
정부행정서비스	174.793	280.690	159.770
쇼핑앱	189.362	292.472	185.428
키오스크	195.363	222.331	141.659
SNS 활용	299.462	266.891	162.215
메신저	44.045	80.334	55.852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368.780	291.802	164.364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394.682	262.866	142.846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371.788	210.642	119.811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435.308	247.894	136.343
AI 스피커 사용	294.756	188.416	105.214
드론 조종 및 활용	262.910	150.063	92.626
사회경제적 변수			
연령	5050.818	7717.915	9861.093
학력	308.392	792.503	552.607
소득	294.039	576.717	439.731

주1) 모든 변수의 값이 $P<0.001$ 을 만족함

주2) 5개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지표별 F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에 별도로 음영을 표시함

3) 디지털 역량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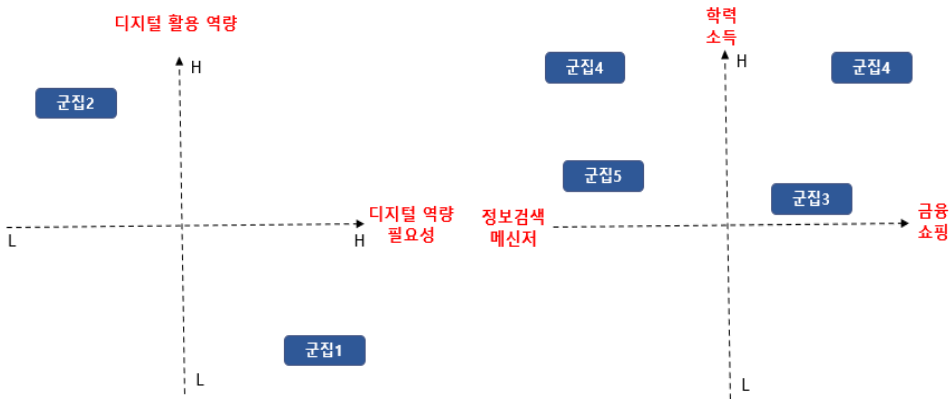
- 50+세대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1유형, 2유형에서는 디지털 활용 역량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역량이 함께 그룹화 되지 않는 특성을 보임
- 3유형에서는 ‘쇼핑앱’, ‘키오스크’ 활용 역량이 높으며,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등의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함께 묶이는 것으로 나타남. 즉 3유형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일정수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부행정 서비스 등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4유형은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문서작성’과 ‘예약/예매’, ‘정부행정서비스’ 및 ‘쇼핑앱’ 활용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드러남
- 5유형에서는 ‘정보 검색’ 역량이 뛰어난 군집에서 ‘메신저’와 ‘정보검색’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8〉 디지털 활용 역량 및 필요성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디지털 활용 역량					
문서 작성	.192	.358	.206	.688	.052
정보 검색	.053	.262	.169	.398	.600
예약/예매	-.041	.326	.400	.579	.308
금융서비스	-.070	.294	.480	.467	.341
정부행정서비스	-.049	.360	.463	.555	.196
쇼핑앱	-.016	.391	.547	.508	.136
키오스크	.067	.414	.576	.384	.103
SNS 활용	.256	.476	.406	.435	-.023
메신저	-.087	.125	.180	.161	.692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342	.701	.153	.295	.055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354	.765	.063	.238	.056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331	.788	-.021	.087	.139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346	.806	.040	.126	.082
AI 스피커 사용	.208	.646	.212	.178	.170
드론 조종 및 활용	.236	.695	.015	.094	-.027
디지털 역량 필요성					
문서 작성	.560	.021	.209	.383	.143
정보 검색	.263	.040	.186	.158	.684
예약/예매	.253	-.032	.561	.174	.428
금융서비스	.156	-.041	.568	.104	.478
정부행정서비스	.318	-.025	.627	.183	.277
쇼핑앱	.280	.024	.732	.123	.208
키오스크	.341	.076	.717	.059	.137
SNS 활용	.613	.157	.463	.149	.016
메신저	.077	.007	.174	.005	.704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782	.276	.191	.124	.063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821	.300	.142	.091	.060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780	.359	.068	.027	.120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807	.338	.135	.057	.079
AI 스피커 사용	.642	.236	.256	.036	.160
드론 조종 및 활용	.738	.243	.171	.057	-.011
사회경제적 변수					
연령	-.144	-.140	-.100	-.702	-.157
학력	.157	.025	.067	.797	.109
소득	.078	.078	.096	.595	.120

○ 디지털 활용 역량 및 필요성 인식에 따른 군집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군집1은 디지털 역량 필요성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그룹임. 특히 문서작성, 개인 블로그 개설, 동영상 콘텐츠 창작 등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을 크게 느낌
- 군집2는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룹임. 특히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 디지털 활용 역량이 뛰어남
- 군집3은 ‘쇼핑앱’, ‘키오스크’ 활용 역량이 높은 소비에 특화된 그룹임. 또한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등의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군집4는 학력과 소득이 높으며 전반적인 디지털 활용역량이 매우 능숙함. 그 중에서도 ‘문서작성’과 ‘예약/예매’, ‘정부행정서비스’ 활용 역량이 뛰어남
- 군집5는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검색·메신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그룹임



[그림 3-4] 디지털 활용 역량 및 필요성 인식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표 3-29〉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군집별 특성 I

유형	유형 정의	군집 특성
군집 1	전반적 디지털역량 필요성 인식형	- 문서작성, 개인 블로그 개설, 동영상 콘텐츠 창작 등 디지털 역량 필요성을 크게 느낌 - 디지털 역량 필요성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그룹
군집 2	전반적 디지털역량 능숙형	-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 디지털 활용 역량 뛰어남 - 디지털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룹
군집 3	소비특화 디지털역량 활용 및 필요형	- '쇼핑앱', '키오스크' 활용 역량이 높으며,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등의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 - 소비에 특화된 금융·쇼핑 활용 및 필요형
군집 4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디지털 활용형	- 학력과 소득이 높으며 '문서작성'과 '예약/예매', '정부행정서비스' 활용 역량이 뛰어남 -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디지털 활용역량 능숙형
군집 5	기본적 디지털역량 활용 및 필요형	- '정보 검색' 역량이 뛰어나며 '메신저'와 '정보검색'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그룹 - 가장 기본적인 정보검색·메신저 활용 및 필요형

○ 사회경제적 변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분석

-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좀 더 분명한 50+세대 유형화를 위해 디지털활용 변수만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이를 통해 디지털 활용수준 유형별로 디지털 역량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 지원 방안 모색 가능함
- 성별에 따른 디지털 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중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이 높은 경향을 보임(2유형). 특히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앱' 등의 디지털 활용을 중년 남성에 비해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성별에 따른 디지털 활용 역량 차이는 50+세대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함의를 줄 수 있음
- 소득에 따른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의 역량이 높은 특성을 보임(1유형). 다만 이 그룹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도 함께 보여 이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성 존재함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1유형, 2유형)
- 디지털 활용 분야에서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의 유형은 다른 디지털 역량에 비해 높은 상호영향을 미치며 함께 군집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임(3유형)

- 디지털 활용 역량 변수만 사용하여 분석한 후, 디지털 활용 수준 유형별로 디지털 역량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별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표 3-30〉 디지털 활용 역량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디지털 활용 역량				
문서 작성	.279	.738	.154	.002
정보 검색	.118	.474	.129	.008
예약/예매	.031	.708	.163	.178
금융서비스	-.003	.649	.138	.257
정부행정서비스	.022	.737	.190	.229
쇼핑업	.045	.711	.242	.336
키오스크	.114	.621	.290	.393
SNS 활용	.343	.635	.288	.205
메신저	-.079	.207	.109	.107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456	.489	.516	-.030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464	.415	.603	-.094
동영상 등 콘텐츠 창작	.459	.299	.618	-.187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428	.303	.703	-.070
AI 스피커 사용	.161	.237	.739	.249
드론 조종 및 활용	.227	.164	.735	.028
성별	-.014	.123	.091	-.018
연령	-.520	-.495	-.042	-.005
가구형태	.887	.157	.004	.062
가구원 구성	.873	.201	.031	.035
소득형태	.751	.181	.197	.171

○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군집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군집1은 고소득 계층으로 디지털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음. 특히,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의 역량이 높은 특성을 보임
- 군집2는 젊은 중장년층 여성으로 디지털 역량이 높은 그룹임. 특히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앱’ 등의 디지털 활용에 있어 중년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능숙한 것으로 나타남
- 군집3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디지털 역량이 높으며 이를 통한 취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임.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의 유형은 다른 디지털 역량에 비해 높은 상호영향을 미치며 함께 군집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임
- 군집4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앱’ 등 일상 생활에 활용하는 그룹임

〈표 3-31〉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군집별 특성II

유형	유형 정의	군집 특성
군집 1	고소득 가구의 디지털 역량 능숙형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역량 전반적으로 높음 -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의 역량이 높은 특성을 보임
군집 2	젊은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 역량 능숙형	- 젊은 중년 여성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그룹 - 특히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앱 등의 디지털 활용을 중년 남성에게 비해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됨
군집 3	디지털 역량의 취미 활용형	-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의 유형은 다른 디지털 역량에 비해 높은 상호영향을 미치며 함께 군집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임 - 상대적으로 특수한 디지털 역량 높은 그룹 -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카페, 블로그 및 콘텐츠 제작 등 취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
군집 4	디지털 역량의 일상생활 활용형	-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앱 등 일상적인 디지털 활동 - 디지털 역량을 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그룹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1) 50+세대 관심사에 관한 기술통계

- 50+세대의 관심사에 관한 군집분석을 위해 사용한 지표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음. 해당 변수는 관심사에 순위로 측정하였으며, 자녀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2〉 50+세대 관심사 기술통계량

변수		유효퍼센트
50+세대의 관심사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33.6
	생계비(가계) 마련	9.3
	본인의 건강	21.6
	여가 및 취미활동	8.8
	노후준비	17.1

2) 50+세대 관심사 군집의 타당성 검증

- ANOVA 분석을 통해 군집수를 2개부터 4개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F값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가 4개인 것을 도출해냄

〈표 3-33〉 관심사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변수	2개군집	3개군집	4개군집
	F값	F값	F값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171.076	128.019	167.507
생계비(가계) 마련	211.756	157.707	355.910
본인의 건강	215.621	111.883	226.046
여가 및 취미활동	109.044	174.793	266.337
노후준비	223.462	189.362	213.478
성별	134.163	195.363	280.690
연령	164.838	299.462	292.472
소득	123.432	308.392	222.331

주1) 모든 변수의 값이 $P < 0.001$ 을 만족함

주2) 5개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지표별 F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에 별도로 음영을 표시함

3) 50+세대 관심사 영역 군집분석

○ 50+세대의 관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유형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계비 마련’에 관심을 갖는 군집이 형성됨
- 3유형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생계비 마련’에 더 관심을 갖는 특성이 나타남
- 한편 2유형과 4유형을 각각 분석해보면, ‘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을 지닌 대상은 다른 변수들과 그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

〈표 3-34〉 관심사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남성	.034	-.111	.484	.036
여성	.045	-.059	.080	.481
연령	.698	.106	.120	-.023
소득	-.687	.010	.086	.069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774	-.080	.154	-.255
생계비(가계) 마련	.520	-.581	.355	-.269
본인의 건강	.262	.912	.072	-.122
여가 및 취미활동	.140	-.181	-.882	-.023
노후준비	.051	-.048	.085	.982

4) 50+세대 관심사 영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 세분화 분석

○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하여 가족, 건강, 노후 등 평소 50+세대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유형화 분석을 실시함. 이를 통해 각 유형별 정책 욕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가구원 구성이 많고 소득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현 상황이 관심사에 반영되어 자녀교육 및 자녀의 취업이 주된 관심을 보임(1유형)
- 성별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행 및 관광, 취미생활이 앞으로 희망하는 여가활동 형태로 많이 나타남(2유형, 5유형)
-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생계비 마련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1유형, 3유형, 4유형)

〈표 3-35〉 관심사 및 희망노후 형태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348	-.323	.388	.366	-.203
생계비(가계) 마련	-.202	.269	.275	.505	.252
본인의 건강	-.195	.060	.271	-.855	-.017
여가 및 취미활동	-.060	.064	.090	.091	.013
노후준비	-.091	-.041	-.896	.151	.022
취미생활	-.023	-.759	.107	.025	.276
소득창출	-.025	.029	.036	.007	.072
귀농·귀촌 등 전원생활	-.039	.209	-.074	.030	-.760
여행·관광	.013	.712	.176	.012	.281
남성	.019	-.011	.003	-.165	-.277
여성	-.604	-.072	-.030	.044	.011
연령	-.651	.070	-.302	-.304	.001
가구형태	.883	.019	.002	.021	.028
가구원 구성	.598	.003	.061	.062	.039
소득형태	.115	.015	-.064	-.062	.050

○ 50+세대의 관심사 및 노후준비 정보제공에 관한 군집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유형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 생계비 마련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임
- 2유형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생계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특성을 나타냄. 즉, 본인의 건강과 생계비 마련이 음의 상관관계의 모습을 보임
- 3유형은 생계비 마련이 주요 관심사일 경우 여가 및 취미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임. 이는 대부분의 수입을 가계 생활비로 사용하여 여가 및 취미활동에 사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4유형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나타남

〈표 3-36〉 관심사 및 필요한 노후준비 정보제공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남성	.027	-.028	-.055	.146	.455
여성	-.311	.644	-.039	-.026	-.038
연령	.707	.020	-.024	-.399	.115
소득	-.687	.090	.273	-.028	.081
충분한 생활비	-.760	-.056	-.235	.098	.195
건강관리	.523	.097	-.092	-.875	.353
가족관계	.278	.050	-.093	.180	.105
취미·여가	.121	-.050	-.103	.615	-.889
주거의 안정성	.027	-.011	.744	-.073	-.014
재무설계	.003	-.869	-.182	-.033	-.011
취미·여가, 사회참여	-.025	.857	-.194	-.062	.008
일자리·경력관리	-.057	-.004	-.043	.046	-.059
건강관리	-.006	.009	.746	.122	.033
사회적 관계	.014	.006	-.023	-.029	.078

○ 50+세대의 관심사 및 필요한 노후준비 정보제공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유형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임. 이를 통해 같은 50+세대 내에서도 고령층일 경우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 및 교육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유형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취미·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정보제공 수요가 높으며, 재무설계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경향을 나타냄
- 3유형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의 안정성에 관심을 보이며,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 4유형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성을 보임. 50+세대 내 젊은 층일 경우 취미활동에 대한 정책지원 및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5유형에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나타내며, 취미와 여가활동에는 관심이 적은 모습을 보임

○ 관심사 및 노후준비에 관한 군집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군집1은 1유형과 5유형을 통해 남성과 고연령층에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군집2는 2유형과 4유형을 통해 여성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서 '취미·여가',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집3은 3유형을 통해 소득이 높은 경우 '주거의 안정성'에 관심을 보이며,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7〉 중장년층 관심사에 관한 군집별 특성

유형	유형 정의	군집 특성
군집 1	건강관리 관심형	남성, 고연령층일수록 '건강관리'가 주요 관심사
군집 2	취미·여가 추구형	여성,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우 '취미·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음
군집 3	주거 안정 관심형	상대적인 고소득층은 '주거의 안정성'이 주요 관심사이며,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함

5) 중장년층의 정책수요

- 중장년층의 정책수요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총 3개 유형이 도출되었으나 각 유형이 다른 변수들과 그룹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나타남. 2유형과 3유형은 각각 소득 보장과 정년기준 연장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 사회경제적 변수 추가 후 중장년층 정책 수요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3유형에서는 정년 퇴직 기준의 연장을 원하는 중장년 남성 그룹으로 나타남

〈표 3-38〉 중장년층의 정책수요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성별	.125	.037	-.073
연령	.835	.000	.010
소득	-.832	.046	.014
노후설계 지원	.011	-.837	-.326
정년퇴직 기준의 연장	-.053	.044	.948
소득보장	.023	.768	-.421
고용지원	-.009	.013	-.102

〈표 3-39〉 중장년층 정책수요 군집분석(사회경제적 변수 추가)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노후설계 지원	-.002	-.002	-.860
정년퇴직 기준의 연장	.036	-.010	.866
소득보장	-.049	.021	-.005
고용지원	.039	.030	.001
성별	.041	.027	-.031
연령	-.057	-.706	.040
가구형태	.049	.887	-.017
가구원 구성	.052	.897	-.026
소득형태	.073	.791	.079

4. 50+세대의 노후준비

1)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 인식 기술통계

- 본 연구에서 50+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군집분석을 위해 사용한 지표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3-36>와 같으며, 대다수 변수의 평균 점수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남.

<표 3-40>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 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재무설계	3.51
	취미·여가	3.74
	사회참여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3.42
	일자리	3.77
	경력관리	3.48
	건강관리	4.03
	사회적 관계	3.76
노후준비 중요요인	충분한 생활비	3.51
	건강관리	3.74
	가족관계	3.42
	취미·여가	3.48
	주거의 안정성	4.03

- <표 3-37>는 노후준비 정보제공에 관한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표 임 각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일자리 경력관리에 대한 변수는 재무설계, 취미·여가 사회참여 변수에서 상관계수 정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준비를 위한 변수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41>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 상관계수

		재무설계	취미·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경력관리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재무설계	Pearson 상관계수	1	.407**	.418**	.246**	.325**
	유의확률 (양쪽)	-	.000	.000	.000	.000
	N	3036	3036	3036	3036	3036
취미·여가 사회참여	Pearson 상관계수	.407**	1	.423**	.262**	.36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3036	3036	3036	3036	3036
일자리 경력관리	Pearson 상관계수	.418**	.423**	1	.288**	.306**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3036	3036	3036	3036	3036
건강관리	Pearson 상관계수	.246**	.262**	.288**	1	.436**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3036	3036	3036	3036	3036
사회적 관계	Pearson 상관계수	.325**	.367**	.306**	.436**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3036	3036	3036	3036	3036

주1) *P<0.1, **P<0.05, ***P<0.001

2) 노후준비 군집의 상관계수 검증

- ANOVA 분석을 통해 군집수를 5개부터 7개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F값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가 5개인 것을 도출해냄

〈표 3-42〉 노후준비 최적군집 도출을 위한 ANOVA 분석

변수	5개군집	6개군집	7개군집
	F값	F값	F값
노후준비 중요한 요인			
충분한 생활비	4.146**	3.093**	3.571**
건강관리	1.331*	.916	.810
가족관계	.938	.384	.800
취미·여가	2.127**	1.252*	2.092**
주거의 안정성	1.253*	.740	1.137
노후준비 필요한 정보			
재무설계	2.273**	1.252	1.034
취미·여가, 사회참여	13.508***	11.718***	11.741***
일자리·경력관리	1.960	1.638	1.825
건강관리	5.210***	3.508**	4.989***
사회적 관계	6.701***	4.236***	9.304***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0.272*	2.450**	2.461*
연령	20712.765***	15696.867***	15707.322***
가구형태	328.886***	379.946***	378.831***
가구원 구성	437.259***	430.676***	430.237***
소득형태	276.747***	470.025***	469.814***

주1) *P<0.1, **P<0.05, ***P<0.001

주2) 5개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지표별 F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에 별도로 음영을 표시함

3) 노후준비 군집분석

○ 50+세대의 관심사 및 노후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표 3-43>와 <표 3-44>에서 향후 보내고 싶은 노후형태와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특별한 집단을 형성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표 3-45>의 3유형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43> 향후 보내고 싶은 노후형태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성별	.062	.035	.424	-.127
연령	.828	.041	.057	.096
소득	-.842	.004	-.018	.079
취미생활	-.048	-.871	.281	-.249
소득창출	.024	.096	-.903	-.238
귀농·귀촌 등 전원생활	.019	.038	.000	.969
여행·관광	-.003	.760	.440	-.307

<표 3-44> 노후준비·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성별	.016	.058	.308	-.171	-.144
연령	.055	.841	-.011	.020	.004
소득	.068	-.831	-.060	.052	.023
충분한 생활비	-.860	.019	-.272	-.273	-.259
건강관리	.871	.001	-.249	-.268	-.253
가족관계	-.001	-.014	-.101	.967	-.068
취미·여가	-.001	-.007	-.099	-.060	.974
주거의 안정성	-.015	-.020	.954	.040	.035

〈표 3-45〉 노후준비 정보제공 군집분석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성별	-.024	-.016	.986
연령	-.040	-.841	-.015
소득	.087	.827	-.038
재무설계	.690	.080	-.027
취미·여가, 사회참여	.727	.021	.086
일자리·경력관리	.694	.083	-.198
건강관리	.627	.031	-.004
사회적 관계	.708	.028	.030

- 사회경제적 변수를 좀 더 세분화한 후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중장년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필요하다고 여기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1유형과 2유형을 살펴보면 재무설계, 취미활동,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관심이 높은 그룹들에서 노후준비에 중요한 요인과 군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보임
 - 3유형에서는 성별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중년여성이 중년남성에 비해 건강관리를 노후준비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4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비교적 연령이 낮은 중년여성이 일자리, 경력관리,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형태로 그룹화가 진행됨
 - 소득 변수를 보면 1유형에서는 가구원 구성이 많고 소득이 많은 경우, 재무설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나타남
 - 5유형에서 중년여성의 경우 주거의 안정성 역시 노후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특성 보임

〈표 3-46〉 50+세대의 노후준비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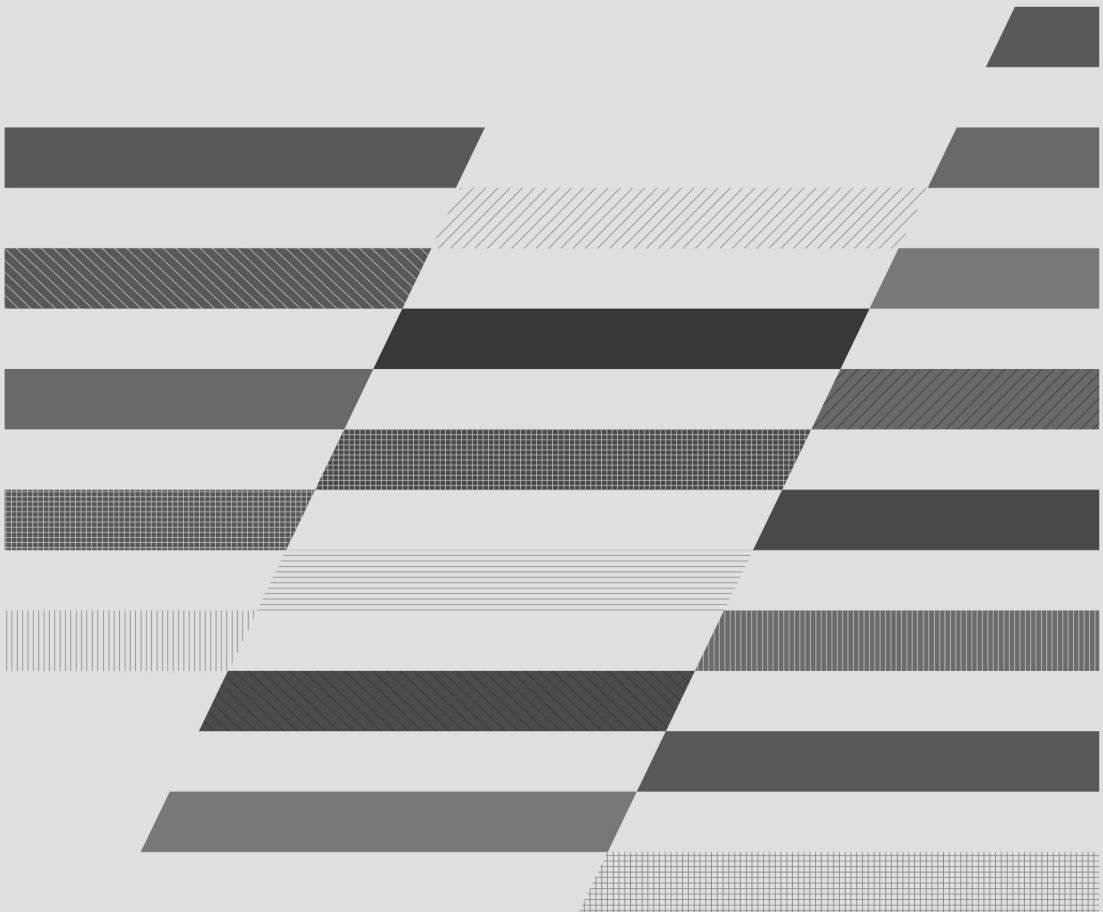
변수	성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노후준비 중요한 요인					
충분한 생활비	.009	.003	-.905	-.017	-.070
건강관리	.066	.132	.726	-.538	-.154
가족관계	-.050	-.134	.102	.229	.054
취미·여가	.021	-.035	.103	.386	.001
주거의 안정성	-.049	-.055	.059	.213	.300
노후준비 필요한 정보					
재무설계	.542	.400	.027	.087	.002
취미·여가, 사회참여	.509	.449	-.051	-.015	.102
일자리·경력관리	.420	.383	.057	.267	.186
건강관리	.470	.340	-.072	.042	-.097
사회적 관계	.478	.396	.049	.299	.000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087	.027	.166	.118	.515
연령	-.617	.426	-.036	-.048	-.011
가구형태	.700	-.475	.010	-.058	-.008
가구원 구성	.715	-.490	.027	-.032	-.002
소득형태	.638	-.389	.055	-.156	-.023



제 4 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결과 종합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 전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성별, 소득, 학력에 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스포츠 관람, 운동 활동 등 외향적인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
- 문화예술 관람을 비롯한 여가활동의 범위는 가구소득 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여건에서는 영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비중이 넓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가구원의 수가 많고 이에 따른 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관광,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현재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에서는 향후 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경우 교육, 여가, 문화활동에 좀 더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은 활용 영역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기도 함. 메신저 등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능숙할 수 있으나 금융서비스나 예약/예매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음

-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은 디지털 역량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은 집단은 금융서비스나 쇼핑, 예약/예매, 정부행정서비스 등에 상대적으로 능숙한 집단으로 나타남
- 소득에 따른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블로그 및 카페개설·활용 방법',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등 영역에서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블로그 활용, 동영상 편집,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등 취미나 일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그룹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서비스와 앱 이용이 능숙한 일상생활 활용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 가구원 구성이 많고 소득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특성 상 자녀교육 및 자녀의 취업이 주된 관심사인 유형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 및 생계비 마련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그룹이 형성됨
- 성별 및 연령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 및 연령층이 낮은 집단은 취미·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및 연령층이 높은 집단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형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 정책수요에 대한 유형은 소득보장을 선호하는 유형과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유형이 구분되었고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중장년 남성이 유의미한 유형으로 도출됨

4. 50+세대의 노후준비

-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무, 취미·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필요하다 여기는 유형이 도출됨
-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 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과 취미·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주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유형이 도출됨

- 비교적 연령이 낮은 중년여성의 경우 일자리, 경력관리,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소득 변수에 따라 가구원 구성이 많고 소득이 많은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설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형이 도출됨

제2절 정책적 제언

1. 50+세대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1)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과 운영방식의 다양성 확보

-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그룹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집단은 특별한 정책적 지원 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여가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대조적으로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주말 혹은 저녁 시간, 이러닝이나 앱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유인(incentive) 및 경로는 가족 및 친구 등 접근이 비교적 쉬운 주변을 통해 참여하는 유형이 나타남.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융합형 참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누구와도 함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참여 독려를 위한 활동처 홍보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현재 무언가 활동을 하는 집단일수록 향후 생활계획에 있어 남은 시간에 대한 활용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중장년이 퇴직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보편적 정책 확대가 필요함
- 사회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이전에 사회참여나 여가활동 등의 참여경험은 향후 참여 의사에도 영향을 미침.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처음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함
 - 여가와 사회참여 등 참여하고픈 의지가 있어도 정보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캠퍼스 혹은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지인을 통한 홍보 강화나 상담센터를 통해 활동처를 문의하는 경우 다양한 기관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장년층이 손쉽게 사회참여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1)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디지털 역량에 따른 유형화 분석결과 일정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부행정 서비스 등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다수 존재함. 이와 대조적으로 비교적 디지털 역량이 높은 집단은 취미활동이나 일활동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원함
- 본인의 디지털 역량수준과 필요한 역량 수준은 비교적 고차원적인 수준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화됨. 즉,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검색, 예약/예매, 금융업무 등에서부터 블로그활동, 미디어 창작, 새로운 기술 활용 등 중장년의 역량과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역량의 수준이 다양함
- 중장년 층 내에서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취미와 일활동 적용까지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수준에 맞는 단계적 지원 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디지털역량 강화 교수학습법의 다양화

- 미래사회 대응기술로 디지털 역량은 필수이지만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필요성을 분석해 본 결과 연령 혹은 소득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이가 나타남으로 수준별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안도 필요함.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활용법이나 금융 및 행정 서비스 관련 앱 활용 등에 대한 체험형 학습 강화와 50+캠퍼스나 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방문하여 1:1로 상시 배울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등의 지원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일정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가진 중장년층은 본인들의 역량을 더 발전시켜 디지털 약자인 노년층이나 동년배를 위한 디지털 멘토로 활동할 수도 있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법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중장년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단해 보고 다양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수학습법이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용어와 이론학습에서부터 체험과 활용의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학습과 상담, 1:1 혹은 1:다수 등의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3. 50+세대의 관심사 및 가치관

1) 연령특성을 반영한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 마련

-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교육 및 자녀의 취업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유형이 나타남. 이는 연령대별 관심사가 다양한 만큼 중장년층의 연령특성을 고려한 관심사별 다양한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함
- 또한 성별 특성에 따라 여성 중에서도 연령층이 낮은 집단은 여가·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남. 중장년 여성의 관심사도 세분화 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에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여가·사회참여프로그램 개발 시 중장년층의 연령을 세분화시켜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한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개선, 자녀교육에 대한 방향이나 방법 등을 다루는 교양과목 개설이나 해당 주제를 가진 자조모임을 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연령층이 높은 남성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용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연계 등도 모색해 볼 수 있음

2)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중장년층 정책수요를 살펴보면 소득보장과 정년연장의 두 유형이 도출됨. 이는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관심사가 지속적인 일·활동을 통한 소득마련과 관련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이를 위해서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함
- 특히 중장년층의 퇴직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40대와 50대 60대의 일·활동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년층의 일·활동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60대는 40대와 50대에 비하여 건강 상 풀타임 일·활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파트타임 일자리 발굴에 초점을 두거나, 40대의 일자리 지원은 전직지원 강화를 통한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연령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안의 마련이 필요함

4. 50+세대의 노후준비

1) 생애설계종합상담의 역할강화

- 50+세대의 노후준비 정보제공 니즈를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제공 영역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재무, 취미·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각 캠퍼스와 센터에서는 중장년의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을 통해 정보 제공 및 활동연계를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합상담센터 홍보 강화와 신규 유관기관 발굴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창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

2) 생애설계종합상담 접근방식의 다양화

- 특히 중장년의 경우 동년배를 통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홈페이지, 앱 등을 활용한 생애설계 종합상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도 손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노후준비지원기관으로의 지정을 통해 중장년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 50플러스 캠퍼스와 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 안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4-1〉 서울시 50+세대 유형별 정책적 지원 분야

유형	지원정책 특징	지원안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동 프로그램 유형과 운영방식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융합형 참여프로그램 개발 • 참여 시간과 경로의 다양성 확보 • 활동처 홍보 강화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처방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진단 실시 • 역량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방안 처방 • 교수학습법의 다양화
관심사	연령특성 세분화 통한 관심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세분화 통한 여가·사회참여 니즈 파악 • 다양한 니즈에 맞는 프로그래 발굴과 운영 • 중장년 적합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노후준비	다양한 노후준비 니즈 충족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종합상담 역할강화 • 생애설계종합상담 접근방식 다양화

참고문헌

- 강성호, 조준용. (2016). 중·고령층 고용변화 추이와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 231-242.
- 강소랑, 권진희, 김성은, 장미나, 강민지. (2019). 50+생애전환교육의 특성과 방향.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강소랑, 문상호. (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98.
- 강소랑, 서인석, 한창묵. (2018). 서울시 50+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강소랑, 양안나, 양인, 김태완, 서인석, 지은정, 최수정, 정성지, 한창묵, 김민정. (2020).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강은나. (2016). 경제활동참여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여가유형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2), 111-137.
- 강현정.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참여 여부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7, 429-448.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17).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계획 마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_____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권인탁. (2017). 퇴직예정자의 은퇴기대와 노후 재무만족도 예측의 관계에서 퇴직준비 및 재무교육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5(4), 171-190.
-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61-75.
- 김경외, 정성도. (2017). 군집 분석을 활용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분석, 3(1) 35-58.
- 김남선, 김만희. (2004). 고령자의 평생교육봉사활동 특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3), 55-78.

- 김민경. (2012).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소비량 분석. 서울연구원.
- 김선화, 임왕규. (2015).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0), 570-586.
- 김영란. (2017). 중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족건강성 및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3), 471-492.
- 김원배. (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449-470.
-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사회연구원.
- 김은순, 권인탁, 임지현, 이병환. (2016). 퇴직예정자의 은퇴 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적용 연구, 14(3), 85-109.
- 김주성, 최수일. (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복지학, 15(3), 97-119.
- 김태훈, 박용현. (2010). 실직경험이 중·고령 노동자의 실직 이후 일자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25.
- 김현정, 강은나, 배혜원. (2016). 은퇴전환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화 연구. 보건사회연구, 36(2), 192-226.
- 김형수. (2012). 기초통계학. 동화기술.
- 문정화. (2019). 고양시 중장년 생활실태 분석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 연구, 3(1), 103-140.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 42(3), 291-327.
-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평생학습 잠재수요집단의 유형 분류: 학습 참여동기에 대한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0(1), 33-62.
- 박연복 · 이규민 · 강상진. (2011). 군집분석을 이용한 수준설정 방법과 타당성 연구, 교육평가연구, 24(3), 645-664.
- 박종연, 유창훈, 박은철. (2012). 우리나라 중고령인구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 보건과 사회과학, 31, 83-106.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이성균, 우석진, 김기현, 김지경.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서성한. (2005). 소비자행동론. 박영사
- 서여주. (2015). 한국 중·고령자의 은퇴유형별 분류 규칙 도출에 관한 종단적 연구. 직업능력 개발연구, 18(3), 125-149.
- 석상훈. (2010).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경제발전연구, 16, 59-82.
- 성지미, 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송민혜, 강민지. (2021).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송민혜, 김정아, 박선영. (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여성가족재단.
- 여유진. (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염인숙. (2019).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472-486.
- 유창근, 이희찬, 한진영. (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통한 노년층 여가활동 연구. 관광학연구, 31(1), 345-363.
- 윤정숙, 김한나, 신수영. (2007).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노인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4), 9-15.
- 윤하림. (2020).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 중장년기 노동궤적의 코호트 및 학력 간 비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병호, 김진아. (2015). 노인정책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이.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94.
-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란, 이의훈. (2002). 실버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정봉사원 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 59-84.

- 이철희, 이에스더. (2015). 한국 장년임금근로자들의 퇴직: 사업체 규모별 위험모형분석. 노동경제논집, 38(1), 31-65.
- 임지숙, 조효진, 조윤진. (2014).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모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3(1), 181-207.
- 임찬수·이시은·조민호·박선경.(2010). 군집분석을 통해 본 G20국가의 사회통합유형화에 관한 연구.
- 장경호, 이미정. (2006). 우리나라 준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교육문화연구, 12, 75-108.
- 장지연. (2003). 고령자의 임금과 취업형태.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II.
- 정순돌, 박지혜. (2014).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저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보건사회연구, 34(1), 105-132.
- 정순돌, 전해상, 정주희. (2015).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7, 61-82.
- 정주원·송현주. (2012). 60대 중고령자들의 주관적 노후인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7, 333-355.
- 조규형. (2021).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 이용현황,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조지영, 박태영. (2013).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퇴직자의 사회적 관계유형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599-623.
- 지은정. (2018).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노동경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4(2), 365-391.
- 진주영, 하규수. (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5-57.
- 채화영, 김주희, 이기영. (201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5(2) 129-146.
- 최중후, 전수영. (2012). JMP를 이용한 판별분석/군집분석. 교우사
- 최혜지, 정은수. (2018).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25(2), 217-237.
- 홍백의, 김혜연. (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홍석태, 양해술. (2008).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5), 287-299.
- 황남희. (2019). 신중년 안정적 노후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찬수·이시은·조민호·박선경.(2010). 군집분석을 통해 본 G20국가의 사회통합유형화에 관한 연구.
- Atchley, Paul, Kramer, Arthur F., (2000). "Age related changes in the control of attention in depth." *Psychology and Aging*, 15(1), 78-87.
- Baltes PB, Smith J. (2003).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from successful aging to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Behavior Science*. 49, 123-132.
- Batram, David. (2021). "Age and Life Satisfaction: Getting Control Variables under Control." *Sociology* 55(2), 421-437.
- Bender, K. A. (2004). *The well-being of retirees: Evidence using subjective data.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CRR WP 2004-24.* Chestnut Hill, MA: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Blanchflower DG, Oswald A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 1733-1749.
- Blau, G. (1994). "Testing a two-dimensional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2), 288-312.
- Chatterji, Somnath. (2018). World Health Organisation's (WHO) Study on Global Ageing and Adult Health. BMC Proc. 2013; 7(Suppl 4): S1.
- Duncan Jr., Starkey. (1969). "Nonverb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72(2), 118-137.
- Fry, P. S. (1992). "Major social theories of aging and their implications for counseling concepts and practice: A critical re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 246-329.
- Gatz M, Zarit SH. (1999). A good old age: paradox or possibility. In: Bengtson VL, Schaie KW (eds)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Springer, New York, pp.396-416.

- Gerino Eva, Marino Elisa, Brustia Piera, Dimitrios G. Lyrakos, Rollé Luca. (2015). "Quality of Life in the Third Age: A Research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7, 217-222.
- Graham C, Ruiz Pozuelo J. (2017). "Happiness, stress, and age: How the U curve varies across people and plac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1), 225-264.
- IPSOS. (2020). *the experience-of-people-approaching-later-life-lockdown*.
- Kahle, Lynn R. (1983). *Social Values and Social Change: Adaptation to Life in America*, NY: Praeger.
- Kanning, Martina and Schlicht, Wolfgang. (2008). A bio-psycho-social model of successful aging as shown through the variable "physical activity".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5(2), 79-87.
- Lee C, Russell A. (2003).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emotional well-being among older Australian women—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 Psychosom Res* 54, 155-160.
- Li, An., Dewen Wang, Shengnan Lin, Meijie Chu, Shiling Huang, Chun-Yang Lee and Yi-Chen Chiang. (2021).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Mediation Effect of Functional Disability."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2.
- Lupien SJ, Wan N. (2004). Successful aging: from cell to self. *Philos Trans R Soc Lond B Biol Sci* 359, 1413-1426.
- Markin, Rom J. (1974). *Consumer Behavior: A Cognitive Orientation*.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Mitchell, A. (1983). *The nine American lifestyles*. New York: Warner.
- Morrow-Howell, Nancy, Greenfield, Emily A. (2016). "Productive Engagement in Later Life."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93-313.
- Mroczek, D. K., & Spiro, A. III. (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89-202.
- Takeshi Nakagawa, Yukiko Nishita, Chikako Tange. (2020). "Stability and change in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Japa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5(1), 78-88.

UNECE. (2018). *Active Ageing. Index*.

Vance DE, Wadley VG, Ball KK, Roenker DL, Rizzo M. (2005).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on cognitive health in older adults. *J Aging Phys Act* 13, 294-313.

Wells, W. D. (1975). Psychographic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2).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울시50플러스 2022-011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50+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석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편집인 황윤주
연구자 송민혜 운영관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ISBN 979-11-92538-01-3(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